

「鄉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An Analysis of the Cited Literature of *Hyangyak-jibseongbang*

金 重 權(Kim, Joong-Kwon)*

◁ 목 차 ▷

- | | |
|--------------------------|--------------|
| 1. 緒 言 | 4.1 引用文獻 |
| 2. 「鄉藥集成方」의 編纂·刊行 및 그 效用 | 4.2 引用文獻記載方法 |
| 3. 內容構成 | 4.3 引用頻度 |
| 4. 引用文獻 分析 | 5. 結 言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향약집성방」에 대한 인용문헌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에 간행된 의서로써 이 책에 인용된 총 문헌의 수는 약 300여종에 달했다. 이들의 인용문헌 중에 「성혜방」이 1331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성제총록」 419회, 「친금방」 364, 「부인대전양방」 262, 「주후방」과 「득효방」은 166, 「경험양방」 144, 「자생경」 139 회이며, 50회 이상인 의서는 「본초」, 「외대비요」, 「백일선방」, 「직지방」, 「삼화자방」, 「본조경험방」, 「매사방」 등이다. 그리고 의서들 중 대부분은 1회 이상으로서 인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서들은 90종에 불과하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의서는 「제중입효방」, 「향약혜민방」, 「어의촬요」, 「향약고방」, 「삼화자방」, 「향약구급방」이며, 조선 초에 간행된 의서는 「향약간이방」, 「향약제생집성방」, 「본조경험방」, 「동인경험방」 등이나 「향약구급방」 외에는 분실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약집성방」이 대부분 중국의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향약재를 이용하기 위한 창조적인 연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要語 : 성혜방, 어의촬요, 제중입효방, 향약고방, 향약집성방

* 光州大學校 人文社會大 文獻情報學科 副教授(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6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06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2006년 12월 18일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ited literature of *Hyangyak-jibseongbang* (a medical book)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1443).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 1) The number of literatures cited in *Hyangyak-jibseongbang* totaled about 300 titles. Of the cited literature, *Seonghyebang*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document, which appeared 1,331 times, and *Seongjechongrok* was cited 419 times. *Cheongeumbang* was cited 364 times, *Buindaejeonyangbang* 262 times, and *Juhubang* and *Deughyobang* were cited 166 times, respectively. *Gyeongheomyangbang* was cited 144 times, *Jasaenggyeong* 139 times, and other medical books cited more than 50 times are *Boncho*, *Woedaebiyo*, *baegilseonbang*, *Jigjibang*, *Samhwaqjabang*, *Bonjogyeongheom*, *Maesabang* etc. Majority of the books were cited more than once. The core literature most frequently cited are no more than 90 titles.
- 2) The medical books published in the Koryo Dynasty are *Jejungibhyobang*, *Hyangyak-hyeminbang*, *Yeouichwalyo*, *Hyangyak-gobang*, *Samhwaqjabang*, and *Hyangyak-gugeubbang*. The books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re *Hyangyak-gannibang*, *Hyangyak-jesaengjibseongbang*, and *Bonjogyeongheombang*, *Dongingyeongheombang*, etc., but all of these books but *Hyangyak-gugeubbang* were lost.

The findings confirm that *Hyangyak-jibseongbang*, even if mostly affected by the Chinese medical books, was a creative medical book which represented the use of native medicines and medical practices of Korea.

Key words : *Jejungibhyobang*, *Yeouichwalyo*, *Hyangyak-jibseongbang*

1. 緒 言

고려시대부터 향약의 재배와 이용에 관한 의서 간행이 계속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조선시대에 와서 향약재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재배방법과 채취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백성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면 값비싼 중국의 약재에만 치중 하다 보니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약재부족현상이 계속되었다. 약재의 부족현상을 대체하기 위하여 각 지방마다 향약을 재배토록 하였으나 재배된 향약도 성분의 감정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는 중국의 약재로 보충하는 등 의약제도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鄉藥救急方」·「鄉藥簡易方」·「鄉藥濟生集成方」등의 의서를 간행한 뒤 각 지방으로 보내 합당한 향약을 선정하여 질병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의약서적이 너무 소략하고 상세치 못한데다가 중국과 우리나라와는 토질이 다르므로 약성이 맞지 않아 질병치료의 효용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약재를 사용해야 만이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의도 하에 기존의 향약의서와 중국의서를 참고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이 간행된 후 成宗(조선 9대 임금)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언문으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의원이나 백성들이 의학백과전서이나 다름없이 이용하게 되었으며, 「醫方類聚」나 「東醫寶鑑」 등의 의서 편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유의 의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도 현재는 서양의 술에 밀려 우리 의서들이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몇몇 학자들의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소개에 불과하다.¹⁾

1)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66)

金信根, 「韓國醫書攷」(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李漢水, 「韓國齒學史」(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三木榮, (解説)鄉藥集成方, 秘藏古版朝鮮醫書叢刊 제 집부록(京城 杏林書院 昭和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용분석과 형태적인 분석은 다음과제로 삼고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본 의서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향약집성방」의 편찬 및 간행 배경, 내용구성을 살펴본 다음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 병문마다 인용문헌들의 빈도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조선 초에 유통되었던 모든 의서를 파악하고, 각 병문마다 인용된 빈도를 조사하여 당시 주로 이용된 의서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일실된 의서를 밝힘으로 해서 이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물론 독창성을 평가하여 한의학의 연구에 자하고자 한다.

2. 「鄉藥集成方」의 편찬·간행 및 그 효용

본 의서는 중국의 여러 의서와 우리나라의 향약의서 등을 참고하여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이²⁾ 세종 13년(1431) 가을부터 편집에 들어가 2년만인 세종 15년(1433) 6월에 완성한 우리 고유의 향약의서이다. 이 책에 權探가 서문을 붙여 동년 8월 27일에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분간하였다.³⁾ 권채의 서문을 보면,

“신농과 황제 이래로 의관이 백성의 질병을 관장하고 명의가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쓰는 데는 모두 기질에 따라 처방을 내고 처음부터 한 가지 처방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백리 천리에 떨어져 살면 서로 풍습이 다르듯이 조목의 생명도 각기 적당한 곳이 있고,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과 습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옛 성인들이 일찍이 온갖 풀의 성미와 사방의 약성에 순응하여 질병을 다스렸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늘이 한 구역을 만들어 큰 동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과 바다에 많은 보화가

17[1942])

2) 俞孝通은 경상도 杞溪人으로 자는 行源이다.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으며, 盧重禮는 황해도 谷山人으로 세종 3년(1421) 7월에 양녕대군의 질환을 치료했으며, 세종 5년(1423) 3월과 4월에 명나라에 가서 중국산 약재와 향약재를 비교 판별하여 유통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향약채취월령」외에 「태산요록」을 편술하였고, 「의방유취」를 편찬하는데도 공헌하였다. 문종 2년(1452)에 세상을 떠났다. 朴允德은 태종 17년 전의감 主簿를 지내고, 세종조에 와서 전의감 副正을 지냈다.

3) 「世宗實錄」卷61 世宗 15年 8月 丁未.

있고 초목의 약재를 생산하여 민생을 기르고 병을 치료할 만 한 것이 없는 것이 없다. 다만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여 시기를 맞추어 채취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먼 곳의 것만을 구하여, 사람에게 병이 들면 반드시 구하기 어려운 중국의 약재를 찾으니 이는 어찌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쭈을 구하는 것과 같을 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약재는 구할 수가 없어서 병은 이미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오직 민간의 나이 많은 노인이 한 가지의 약초로 한 병을 치료하여 신기한 효험을 보이는 것은 어찌 그 땅의 성질에 알맞은 약초와 병이 서로 맞아 치료되는 것이 아니겠는가.”⁴⁾

이 내용은 우리 백성의 질병을 우리 토양에서 나는 약재로 치료해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身土不二의 의미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좋은 약재가 많이 있으나 채취시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약성이 미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약재를 구하여 치료해 왔는데 중국은 거리가 멀어 구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자는 동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향약의서를 편집하여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모든 궁촌벽지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의도로 보아야 하겠다. 계속해서 이 서문을 보면, 「향약집성방」의 편집 구성을 알 수 있다.

“예전에 判門下 權仲和가 여러 책을 뽑아 모아서 『鄉藥簡易方』을 저술하였고 그 후에 또 平壤伯 趙浚 등과 더불어 약국 관원에게 명하여 다시 여러 책을 참고하고, 또한 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의서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전공하는 자들은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이에 유의하여 醫官을 골라서 매년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서 의서를 널리 구하게 하고 또 황제에게 건의하여 大醫院에 나아가서 약명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게 하였으며,

4) 鄉藥集成方 序; 自農黃而下, 代有醫官, 以掌萬民之疾, 而名醫之診病用藥, 皆隨氣施巧, 初非拘以一法, 蓋百里不同俗, 千里不同風, 草木之生, 各有所宜, 人之食飲嗜俗, 亦有所習, 此古昔聖人, 嘗百草之味, 順四方之性而治之者也. 惟我國天作一區, 據有大東, 山海寶藏之興, 草木藥材之產, 凡可以養民生而療民疾者, 蓋亦無不備焉, 但自古醫學疎廢, 採取不時, 忽其近而求之遠, 人病則必索中國難得之藥, 是奚啻如七年之病, 求三年之艾而已哉. 於是藥不能得, 而疾已不可爲也. 唯民間故老, 能以一草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 藥與病值而然也. 夫不遠千里, 求仲無名之指者, 人之常情也. 況不出中國而可以療疾者乎, 人患不知耳(後略).

宣德 辛亥年(1431) 가을에 집현전 직제학 俞孝通·典醫 盧重禮·副正 朴允德 등에게 명하여 다시 鄉藥方에 대하여 여러 책에서 빠짐없이 찾아낸 다음 분류하고 증보하게 해서 한 해가 지나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舊證은 338가지였는데, 이제는 959가지가 되었고, 舊方은 2803가지였는데, 이제는 10706가지가 되었으며, 또 針灸法 1476조와 鄉藥本草 및 炮製法을 부록으로 해서 합해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이름을 ‘향약집성방’이라 하였다. 간행하여 널리 전하려고 臣 採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였다.(후략)”⁵⁾

본 서문에서 舊證과 舊處方은 태조 7년(1398)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년을 거쳐 편찬한 「鄉藥濟生集成方」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 의서는 「鄉藥濟生集成方」을 증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三和子鄉藥方」·「鄉藥簡易方」⁶⁾ 등의 의서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鄉藥濟生集成方」의 서문과 발문에, 오래전부터 「三和子鄉藥方」이라는 의서가 있었으나 이 책이 너무 간략한 점이 적지 않다. 이것을 염려하여 權仲和가 徐贊에게 명하여 「鄉藥簡易方」을 만들었으나 이 책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또 제생원이 설치되고, 각도에 의학원을 두어 교수를 파견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생원에서 조준, 김사형, 권중화, 김희선 등이 서로 협력하여

5) 鄉藥集成方 序:(前略)昔判門下臣權仲和, 嘗加採輯, 著鄉藥簡易方, 其後又與平壤伯臣趙浚等, 命官藥局, 更考諸方, 又取東人經驗者, 分門類編, 鉅梓以行, 自是藥易求而病易治, 人皆便之, 然方書之出於中國者尙少, 藥名之異於中國者頗多, 故業其術者 未免有不備之嘆, 恭惟我主上殿下, 特留宸慮, 命揀醫官, 每隨使如京, 廣求方書, 且因申奏, 就太醫院, 考正藥名之謬, 宣德辛亥秋, 乃命集賢殿直提學臣俞孝通, 典醫監正臣盧重禮, 副正臣朴允德等, 更取鄉藥方編, 會諸書搜檢無遺, 分類增添, 歲餘而訖, 於是舊證三百三十八, 而今爲九百五十九, 舊方二千八百三, 而今爲一萬七百六, 且附以鍼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 鄉藥本草及炮製法, 合爲八十五卷以進, 名曰鄉藥集成方, 刊行廣傳, 命臣採序之.(後略)

6) 일부 학자는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내용이 13門에서 50여개의 처방이 인용된 점으로 보고 고려시대의 것이 아닌가 단정하기도 했지만 신빙성이 없다. 그 이유는 「향약제생집성방」 발문에 “權仲和가 徐贊에게 명하여 「鄉藥簡易方」을 편찬하였다”는 기록과 「鄉藥集成方」의 서문에 “옛날에 判門下臣 權仲和가 일찍이 채집을 더하여 「鄉藥簡易方」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에서 權仲和를 조선太祖 때의 인물로 본다면 「鄉藥簡易方」이 고려 때의 의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태조 2년 1월 29일에 전라도 안렴사 김희선이 도평의사사에게 보고할 때 교도들로 하여금 「향약해민경험방」을 익히게 하고 교수관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하고 권장토록 한 기록으로 보면, 당시까지 「향약간이방」이란 의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簡易方」에 여러 처방을 첨가하고 또 東人이 경험한 것을 분류·편성한 뒤 드디어 태조 8년(1399) 5월에 완성하였다. 이 의서에 「鄉藥濟生集成方」이란 이름을 붙이고 「우마의방」을 첨가한 다음 김희선이 강원도에서 판각하여 널리 반포한 것이라고 하였다.⁷⁾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기록에 의하여 「鄉藥集成方」에 영향을 미친 의서의 체계를 세워보면, 「三和子鄉藥方」→「鄉藥簡易方」→「鄉藥濟生集成方」순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세종 9년(1427) 9월에 黃子厚가 「鄉藥救急方」⁸⁾을 인쇄하여 충청도에 보내어 지방에서도 간행하도록 한 것⁹⁾ 등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鄉藥救急方」도 본 의서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鄉藥集成方」편집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이 완성되기 전 세종 15년(1433) 6월 1일에 典醫提調 黃子厚는 편찬 중에 있는 「鄉藥方」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즉, 편집하고 있는 鄉藥方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대인·소아·노약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거리로 아무 병에는 몇 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撰集한 책은 권수가 전보다 갑절이나 많고, 또 老少強弱에 대한 복약양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무지한 사람들이 박절한 일을 당하면 무슨 약을 써야 옳을지 알지 못할 것이니, 병을 고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해결책으로 「百一選方」·「易簡方」·「撮要」혹은 「經驗良方」이라 하는 의서가 있으니, 향약방 안에 諸病證論을 예전대로 두어 삭제하지 말고, 경험한 좋은 약을 정밀하게 뽑고 간략하게 모아서, 각각 그 方文 밑에 약의 우리말 이름과 독의 유무, 老少의 복용법 등을 脚註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알도록 하면, 약을 맞게 쓰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건의하였다.¹⁰⁾ 그 후 10일 있다가

7) 「陽村集」卷17 鄉藥濟生集成方 序.

「陽村集」卷22 鄉藥濟生集成方 跋

8) 3권 1책으로 原刊本은 고려 고종 때 강화도의 大藏都監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태종 17년(1417) 崔自河가 경상도 義興에서 編한 중간본이 일본 宮内청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에 영인되어 있다.

9) 「世宗實錄」卷37 世宗 9年 9月 丙申(11日 條).

10)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壬午(1日 條).

「鄉藥集成方」이 완성 되었지만¹¹⁾ 황자후가 건의한 대로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 「鄉藥集成方」이 완성된 후인 동년 8월 27일에는 전라도와 강원도에 각각 나누어 보내어 인쇄하도록 했으며, 인쇄 후 각 지역에 보내 질병치료에 사용토록 하였다. 이 책을 세종 24년(1442)에 함길도에 「補註銅人經」·「本草」·「和劑方」 등의 의서와 함께 보내어 생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으며,¹²⁾ 단종 2년(1454)에도 역시 함길도에 「和劑方」과 「拯急遺方」·「鄉藥集成方」의 각 인본과 약재를 보내주었다.¹³⁾

이 책의 효용과 간행면에 있어서는 세조 때 習讀官의 의서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며,¹⁴⁾ 성종 때에 와서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성종 9년(1478) 10월 29일에 좌부승지 李瓊수의 건의로 典校署에 있는 판본으로 중간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약의 수입이 법으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고 또한 품질이 좋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풍토나 기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질도 달라서 중국의 약이 우리의 신체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¹⁵⁾ 그러나 본서가 중간되었는지 개정판인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개정판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동 9년 11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예조의 건의문을 중에 일부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 「鄉藥集成方」을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배포해서 향약을 개발해 쓰도록 하고 四孟朔에 醫員을 試才 할 때에 이것도 함께 시험하게 하소서.
2. 병든 사람이 만약 와서 證候를 물으면 「鄉藥集成方」을 써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醫女는 옛날대로 제생서에 속하게 하소서
3. <本草>에 기재된 향약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백성들이 單方으로 치료하여 효험을 얻은 자가 있으니, 여러 道에 자문하여 비록 <본초>에 실려 있지 아니하더라도 병을 치료하여 효험을 본 약은 「향약집성방」의 <본초>의 뒷부분에 추가하여 기입하게 하소서.
4. 各道에 藥草를 採集하는 사람으로 大官 5戶, 小官 3호를 差定하여 雜種 부역

11) 「世宗實錄」卷60 世宗 15年 6月 壬辰(11日)條.

12) 「世宗實錄」卷95 世宗 24年 2月 丙辰. 책4. 400.

13) 「端宗實錄」卷10 端宗 2年 2月 丙戌. 책6. 670.

14) 「世祖實錄」卷 5 世祖 2年 8月 癸亥. 책7. 149.

15) 「成宗實錄」卷97 成宗 9年 10月 丁巳. 책9. 658.

은 면제시켜 전적으로 해당 시기에 따라 약초를 채취하게 하고,父子끼리 서로 계승하여 世業으로 삼게 하소서.

5. 전에 撰集한 「향약집성방」의 <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바치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으니, 매우 未便합니다. 아울러 모두 撰集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⁶⁾

위의 내용에서 <本草>는 「鄉藥集成方」의 말미에 기록된 <향약본초>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약본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해서 편집한 다음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10년(1479) 2월 13일에 兵曹參判 金順命과 承旨 李瓊全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世祖朝에 「救急方」을 撰集하였으나, 그 藥材 중에서 중국에서 나는 것은 백성이 쉽게 얻을 수 없으니, 鄉藥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백성의 성질은 중국과 다르니, 향약의 효험이 더욱 속하지 않겠는가?” 하자, 承旨 李瓊全이 아뢰기를, “「鄉藥集成方」이 전에 이미 찬집되었으나, 근자에는 「和劑方」을 즐겨 쓰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찬집한 <本草>에는 그 이름만을 적고 그 형상을 그리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唐本에 따라 다시 찬집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¹⁷⁾

16) 成宗實錄 卷98 成宗 9年 11月 壬午. 책9. 668.

“《鄉藥集成方》多數印出, 廣布使之興用, 四孟朔醫員試才時, 兼試此方. 一. 病人若來問證候, 醫員用《鄉藥方》命藥治療, 醫女, 依舊屬濟生署. 一. 《本草》所載鄉藥, 既已用之矣. 然田野之民有以單方治療得效者, 訪于諸道, 雖不載《本草》, 療病得效之藥添入《鄉藥本草》之後. 一. 各道採藥人, 大官五戶、小官三戶差定, 除雜徭專委隨月採取, 令父子相承, 以爲世業. 一. 在前撰集《鄉藥》·《本草》, 諸藥採取乾正之法, 未盡載錄. 非唯未盡載錄, 隨後見出興用藥材亦不添錄. 故各官貢藥, 任意採取, 失其本性, 治病無效, 甚爲未便. 并詳悉撰集, 開刊廣布.” 從之.

17) 成宗實錄 卷101 成宗 10年 2月 庚子. 책9. 695.

“世祖朝, 嘗撰《救急方》, 其藥材出於中國者, 民不易得, 請撰《鄉藥醫方》, 廣布民間.” 上曰: “我國民性異於中國, 鄉藥之效無乃尤速乎?” 承旨李瓊全啓曰: “《鄉藥集成方》曾已撰集, 近者 好用《和劑》, 是以不行. 且《東人本草》止錄其名, 不圖其形, 人不得知, 請更依唐本撰集.” 上曰: “然.”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본 의서는 향약본초부분을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성종 19년(1488) 9월 20 일에는 이 책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활자로 인쇄토록 한 바 있다.

전교하기를, “나는 본래 약방문을 몰랐으나, 이제 대비께서 편찬하시기 때문에 대략 조금 알았다. 대체로 唐藥은 민간에서 얻기 어려우나, 『鄕藥集成方』에 실려 있는 약은 庶民이 다 분별하여 알아서 쓸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니, 老熟한 의원을 시켜 일상 쓰기에 절실한 것을 抄錄하여 諺文으로 번역하고 鑄字로 찍어서 민간에 퍼도록 하라.”하였다.¹⁸⁾

따라서 성종은 향약의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학취재과목으로 까지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목으로만 채택되었지 그 이후 취재시험에 한 번도 실시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그 원인은 향약의서가 의원들의 실용서가 아니고 의술을 모르는 백성이나 지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간행된 책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례로 그 용도를 보면 세종 15년(1433) 6월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자후가 『향약집성방』에 대해서 평을 하는 내용 중에 “『향약방』은 唐藥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방에서 의서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撰集한 것은 권수가 전보다 갑절이나 많고, 또 老少強弱에 대한 복약 양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지한 사람들이 만일 박절한 일을 당하면 무슨 약을 써야 옳을지 알지 못할 것이니, 병을 고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¹⁹⁾ 라는 기록과 예종 1년(1469)에 양성지의 상소 중에

“빈궁한 마을의 백성들이 뜻밖에 질병에 걸리면 심하게 괴로워하는 상황을 귀와 눈으로는 차마 보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律學의 生徒는 매 州마다 1인씩 맡아서 取하니, 빌건대 이 예에 의하여 매 縣에서 1인, 郡에서 2인, 都護府 이상에서 3인씩을 취하여 典醫監에 소속시켜서, 1년이나 3년간 醫書를 講讀하고

18) 成宗實錄 卷220 成宗 19年 9月 庚辰. 책11. 374.

“傳曰: “予本不解藥方, 今因大妃違豫, 粗識大概. 大抵唐藥民間得之爲難, 如 《鄕藥集成方》所載藥, 欲令齊民皆能辨識而用之. 宜令老醫, 抄其切於常用者, 譯以諺文, 用鑄字, 印布民間”

19)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6月 壬午 (旧 條).

醫事를 학습하게 하여, 각기 散官을 제수하여서 임시로 그 맡은 일을 알게 하고, 「鄉藥集成方」 등을 주어 이루게 하소서.”²⁰⁾

이와 같이 이 책의 용도가 황자후나 양성지의 상소문처럼 의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고용이나 학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의 내용도 거의 단방 약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목적이야 우리고유의 체질에 고유의 향약을 이용한다는 점은 동감하지만 당시는 중국의 수입약재로 국가 전역에까지 미치지 못했던 까닭에 자구책으로 향약을 재배했을 수도 있다. 그 근거로 세종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우리나라 향약을 중국약재와 약성 및 약의 맛을 비교하여 사용하고 또한 중국의 의사들에게 감별을 부탁한 것 등으로 보면 내면적으로는 중국의 약재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의약의 수준을 지적으로 높이고 의술을 개발하는 방책이기도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외화 낭비를 줄이는 면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종 이후 이 책의 간행은 인조 11년(1633)에 훈련도감제조 李曙 등이 補遺1권을 더하여 重刊하여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원본은 일본 동양문고에 보존되어 있고, 국내에는 일부분만 일부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다.²¹⁾

20) 朝鮮王朝實錄. 睿宗 1年 6月 辛巳. 卷 6. 책8. 393.

“窮村之民, 橫罹疾病, 辛苦之狀, 耳目所不忍見聞也。臣見律學生徒, 每州責取一人, 乞依此例, 每縣取一人, 郡二人, 都護府以上三人, 來屬典醫監, 或一年或三年, 講讀醫書, 學習醫事, 各授散官, 權知職事, 就付《鄉藥集成》等方”

21) 1. 규장각 소장본

1) 1책(영본) 내의원활자, 24.5*16.3cm, 사주단변, 반엽광곽 19.6*13.8cm, 15항 18자, 판심: 상하향화문어미, 소장본: 권 25-27(1책)

2) 1책(영본) 내의원활자, 24.2*16.4cm, 사주단변, 반엽광곽 20.2*13.5cm, 15항 18자, 판심: 상하화문어미.

3) 1책(영본) 내의원활자, 23.7*16cm, 사주단변, 반엽광곽 20.3*13.4cm, 15항 18자, 판심: 상하향화문어미, 소장본: 총85권 중 권61-63 외결

4) 1책(영본) 내의원활자, 24.5*16.3cm, 사주단변, 반엽광곽 20.2*13.5cm, 15항 18자, 판심: 상하향화문어미, 소장본: 권70(1책)외 결. 印 想白書屋

2. 한독의약박물관

목판인본, 17.2*27.8cm, 광곽 13.2*21.3cm, 有界 12항 21자

3.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본

총 85권 30책중 28책(제13, 17책결) 24.1*16.2cm, 15항 18자 상하 이삼엽화문어미, 반곽

3. 內容構成

「향약집성방」은 총 85권으로 권두에 “宣德 八年(1433) 六月 日 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直修/文殿知製 敎臣權採謹序”라는 권채의 서문이 있으며, 서문 다음에는 “鄉藥集成方 總目錄”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資生經」에서 채록한 침구목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258종을 수록하고 있다. 인조 11년(1633)에 중간한 책에는 卷末에 “崇禎六年癸酉(1633)十二月 日 崔鳴吉 謹跋”이 라는 최명길의 발문과 간행에 참여한 자 즉, 金瑬, 李曙, 崔鳴吉, 李敏求, 張仲仁, 尹弘任, 鄭之問 등의 官銜과 姓名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총 57대강문과 婦人科와 小兒科 2개의 科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 병의 증상을 目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처방과 침구법, 향약본초 및 포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綱目에 해당하는 증상과 처방을 기록하고, 문장의 서두마다 인용문헌을 기록하였으며, 권말에

21*13.9cm, 판심서명: 집성방, 서: 선덕 8년(1433) 권채 서, 발: 崇禎6년 癸酉(1633) 崔鳴吉 跋

4. 원광대학교

1) 新活字本, 京城, 杏林書院, 1943, 85권 1책, 行字數不定, 서: 崔南善, 간기: 소화18년(1943) 경성 행림서원 발행

2) 權採 等受命編, 1책 사주단변 반곽 20.4*13.5cm, 15항 18자; 23*16
본관소장; 권 31-33, 46

발: 崇禎 6年(1633) 崔鳴吉 跋

5. 일본동양문고

85권 보유 1권 인조11년(송정 6) 최명길발 목활자본

6. 동국대학교

신연활자 경성 행림서원 1942년간, 85권 3책 사주단변 반곽 20.7*15.3cm 반엽 3단 24항 54자, 주쌍행 25.8*18.8cm, 線裝(朝鮮秘藏古版醫書叢刊 第1輯)

서: 선덕8년(1433) 6월, 권채 서

간기: 소화 17년(1942) 4월 25일 발행

소장인:海圓樓珍藏

7. 허준연구소 소장본은 85권 중 1책 3권(10, 11, 12)으로 목판 후쇄본임. 黃紙에 紅絲를 이용 五針眼으로 제본한 線裝本이며, 표지서명이 없다. 책의 크기는 가로 17cm x 세로 27.5cm이고 반곽은 13.5cm x 21cm 이다. 반엽은 12항에 22자로 註雙行이며, 변란은 사주쌍변이며, 판심의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다. 내용 중 小題를 나타내는 부분에 左右三葉花紋魚尾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8. 영인본은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醫藥學篇>에 있다.

는 향약본초의 總論과 各論을 기록하였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제1권부터 4권까지는 풍병문이 기록되어 41가지의 풍에 대한 병명과 원인 및 치료법 등이 소개되어 있고, 각 병문마다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제5권에서 8권까지는 상한문으로 58가지의 증상과 치료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9권에는 열병문과 서한문, 습병문으로 열병문에는 19가지의 증상과 처방, 서한문에는 일체의 서열과 침구법, 습병문에는 습병에 대한 증상 및 처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10권에는 적열문과 학병문으로 분리하였는데 적열문에는 적열제증이 기재되어 있고, 학병문에는 17가지의 학병에 대한 병명 및 치료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11권은 각기문으로 10가지의 각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12권과 13권에는 요통문과 괄란문, 현훈문으로 요통문은 7가지의 증세와 침구법, 부록으로 수족병 및 그에 대한 침구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괄란문은 13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 현훈문에는 현훈제증과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다. 제14권에는 제허문으로 일체의 허증과 침구법, 제15권은 경계문과 허손문으로 경계문은 경계제증과 침구법 부록으로 선소와 침구법이 허손문에는 15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및 8번의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제16권에는 노채문과 삼소문으로 노채문에는 여러 가지 노채와 침구법 기타 두가지의 증세를 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삼소문에는 소갈, 소중, 소신 및 침구법 기타 2가지를 부연하고 있다. 제17권에는 수병문으로 일체의 수증과 침구법 기타 3가지의 수병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第18卷 黃病門에는 26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第19卷 大小便門에는 7가지의 증세와 치료법이 소개하면서 각 부분마다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第20卷 大小便門, 諸淋門에는 19권에 이어 대소변문의 질병 7가지가 기재되어 있고, 제임문은 석임, 기임, 고임, 노임 등 4가지를 소개하고 第21卷 諸淋門, 諸疝門으로 제림문은 20권에 이어 4가지와 침구법을 기재하고 있으며, 제선문은 6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第22卷 積聚門은 13가지의 질병을 나열하였고 第23卷 心痛門에는 5가지의 질병과 침구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第24卷 諸效門은 5가지의 질병과 침구법을 第25卷은 諸效門, 諸氣門으로 24권에 이어 2가지의 제해에 대한 질병을 제기문에서 2가지

諸飲門에는 8가지의 질병과 치료법을 기재하고 있다. 第26卷 嘔吐門, 噎膈門으로 각각 2가지씩의 질병과 그 치료법을 第27卷 脾胃門, 蠱毒門에서는 여러 가지의 증상과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第28卷 鼻衄門은 7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第29卷 鼻衄門, 頭門에는 28권에 이어 6가지의 鼻衄증상을 두문에서는 5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第30卷 頭門과 眼病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문은 29권에 이어 5가지의 증상과 치료법이 안병에는 5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第31卷 第32卷까지 眼病에 관한 증상과 치료법이 24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第33卷은 耳病門과 鼻門으로 이루어 졌는데 耳病門에는 5가지, 鼻門에는 6가지의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第34卷에는 口舌門과 齒牙門으로 9가지, 치아문은 아치동통과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第35卷은 34권에 이어 齒牙에 대한 증상 15가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第36卷 咽喉門에는 13가지의 증세와 치료법 및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다. 第37卷과 38卷은 諸痢門으로 23종의 병론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수록되어 있으며, 第39卷 痔漏門에는 4가지와 각 증상마다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다. 第40卷부터 第47卷까지 73종의 병증과 치료법 및 침구법을 수록하였으며, 제47권 말미에 折傷跌撲門 2종과 第48卷에서 1종을 밝히고, 第48卷 諸損傷門 5종. 第49卷 諸損傷門 9종, 蟲獸傷門 1종과 침구법, 第50卷 蟲獸傷門 10종. 第51卷 蟲獸傷門 1종, 中諸毒門 9종, 第52卷 中諸毒門 11종. 第53卷 諸救急門 16종. 第54卷은 婦人科로 調經門에서 9종, 崩漏門에서 5종을 기록하고, 第55卷 婦人諸病門에서는 24종, 第56卷 婦人諸病門 14條, 女陰門은 7종과 부록으로 부인잡병 1종을 부가하였다. 第57卷 求嗣門 7종, 胎教門 18종, 第58卷에서 60卷까지는 妊娠疾病門으로 46종의 병증과 치료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第61卷은 坐月門과 產難門으로 나누어 좌월문에는 16가지 이상의 병증과 치료 및 금기법이 產難門도 16종과 第62卷 產難門 6종, 第63卷에서 第66卷까지는 產後門으로 54종의 증상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第67卷부터 第75卷까지 小兒科로 188종의 병증과 치료법 등을 기록하였으며 75卷 마지막 부분에 補遺로 神仙方序와 神仙諸方 및 神仙去三尸九蟲法을 소개하고 있다. 第76卷부터 85권까지는 鄉藥本草 概論으로 76卷에는 指南總論으로 처방법과

조제법, 복용법, 용량, 약을 쓰는 방법, 약을 술에 씻거나 말리는 방법 및 諸品藥石 炮製法 등으로 석부 17종, 초부 90종, 목부 32종, 인부 3종, 수부 13종, 금부 2종, 충어부 28종, 과부 8종, 미곡부 7종, 채부 8종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77권에는 鄉藥本草 各論으로 石部上品 18종, 중품, 32종, 하품 51종 모두 101종, 78권은 초부상품 상 29종, 초부상품의 하 23종, 79권은 초부중품의 상 27종, 초부중품의 하 33종, 초부하품의 상 19종, 하 44종으로 모두 175종을 80권은 木部上品 28종, 중품 29종, 하품, 16종으로 모두 73종, 81권은 人部 16종과 獸部 상 12종, 중품 55종, 하품 20종 모두 87종, 82권은 禽部 상품 19종, 중 7종, 하품 17종 모두 43종과 蟲魚部 상품 18종과 83권은 충어부 중품 28종, 하품 34종 모두 80종이 기재되어 있고, 84권에는 果部 상품 10, 중 6, 하 11로 모두 27종과 米穀部 상 6, 중 23, 하품 7 모두 36종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85권에는 菜部 상품 18, 중 10, 하품 13 모두 41종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 85권에 病證이 959가지이고, 그에 대한 처방이 10706가지이며, 침구법이 1,476조이며, 향약본초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 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米穀, 菜部가 모두 208종이며, 각론에서는 679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각 병문들을 현대의학에 맞도록 분류하면, 內科는 제1권 風病門부터 제20권 大小便문까지와 제22권 積聚門부터 27권 脾胃門, 제29권 30권 頭門, 제37권, 38권 諸痢門까지로 볼 수 있다. 제39권부터 제51권 蟲獸傷門까지 外科 및 皮膚科로 분류되며, 泌尿器科는 제20권과 제21권 諸癰門 및 諸疔門, 제30권부터 32권까지는 眼科, 耳鼻咽喉科는 제28권, 제29권 鼻衄門, 제33권 耳病門, 鼻門, 제34권 口舌門, 제36권 咽喉門 등이고, 齒科는 제34권, 35권 齒牙門, 產婦人科는 제54권부터 66권까지이고 小兒科는 67권부터 75권까지, 기타 제27권 말미의 蠱毒門과 제51권 中諸毒門부터 제53권 諸救急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제28권 29권의 비눗문을 이비인후과에 넣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다. 코피가 나는 것은 코 자체에서 이상이 생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가 허하고 열이 심한데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코에 있던 열이 간으로 옮겨가면 코피가 난다고 「향약집성방」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내과에서 치료해야 할 것을 이비인후과로 가면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코만 치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병이 발생하는 원인구명차원에서 볼 때 각 병문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引用文獻分析

4.1 引用文獻

본 의서의 인용문헌은 「聖惠方」·「聖濟總錄」·「千金方」·「日華子」·「圖經」 등 총 300여종으로 대부분 隋·唐·宋·元代の 의서 등이 대부분이다. 이 중 우리나라의 의서로는 고려시대의 「三和子鄉藥方」·「鄉藥古方」·「濟衆立效方」·「鄉藥惠民經驗方」·「御醫撮要」²²⁾·「鄉藥救急方」과 조선시대 의서인 「鄉藥簡易方」·「鄉藥濟生集成方」·「東人經驗方」·「本朝經驗方」 등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300 여종 중에는 의서가 아닌 일반문헌인 「南北史」·「茶經」·「史記」·「禮記」·「事林廣記」·「事文類聚」·「博物志」·「莊子」·「許氏說文解字」·「淮南子」 등이 폭넓게 인용되었다. 이들 인용서 중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시대별로 보면, 後漢의 의서로는 「傷寒論」, 「金匱玉函經」 등이다. 본서에서는 서명인 「상한론」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한론」의 저자의 字인 張仲景으로 표기하였다. 「傷寒論」과 「金匱玉函經」, 「五藏論」 모두 張機의 작품이다. 그의 字는 仲景이며, 東漢의 南陽人으로 벼슬은 長沙의 太守에 이르렀으며, 당시 醫聖이라고 칭송 받았다고 한다. 이 작품 외의 저서로는 醫方, 大備, 扁鵲倉公 등 다수가 있다. 「金匱玉函經」의 본서명은 「金匱要略」이다.

22) 金斗鍾선생은 御醫撮要를 그의 저서 「韓國醫學史」(224)에서 고려중기경에 최중준이 저술한 新集御醫撮要로 보고 있다.

晉代(서기 265-420)의 의서로는 皇甫謐의 「甲乙經」, 「針經」과 王叔和의 「脈經」과 「脈訣」 등이 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인용되었지만 본 의서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金匱藥方」, 「肘後方」, 「備急方」, 「范汪方」, 「鬼遺方」등만 인용되었다. 「抱朴子」, 「金匱藥方」, 「肘後方」, 「備急方」은 東晉(317-420) 葛洪의 저서로 그의 자는 稚川이고, 號는 抱朴子이다. 抱朴子是 중국최고의 道教書籍總錄이다. 이 책은 내편과 遐覽篇으로 나누어 經·圖·符·記·法 등 5종으로 나누었으며, 道書가 670卷, 符書가 500卷이 수록되어 있다. 본 책에서 抱朴子로 인용처를 기록하였는데 葛洪의 저술로 보인다. 葛洪은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하여 땔나무 장사와 紙筆墨 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렸으나, 후에 晉의 句漏令이 되어 政事를 잘하였으며, 말년에는 羅浮山에 은거하여 神仙導引法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鬼遺方」은 「隋書經籍志」에 「劉涓子鬼遺方 10卷闕」이라 하고 註에 「龔慶宜撰」이라 하였다 「多紀元胤」〈醫籍考〉 第7卷 方物48에 본 의서의 龔慶宜序가 있는데 그 서문에 「劉涓子は 晉末人이다. 丹邱縣에서 「鬼遺方」 1권을 얻으니 모두 癰疽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그 서문 끝에 「齊 永元 元年己卯撰」이라고 되어 있다.

後周(서기 951-959)의 의서로는 「藥對」와 「集驗方」으로 이 중 「약대」는 徐之才의 저서로 그의 字는 士茂이고, 雄之의 아들이며, 어렸을 때의 이름이 隼發(雋發)이다. 13세에 태학에 입학했으며 의술뿐만 아니라 「禮記」와 「周易」에도 능통하였다고 한다. 벼슬은 尚書에 이르렀으며, 司徒公에 추증되었다. 諡號를 文明이라 하였다. 「集驗方」은 姚僧垣이 저술한 의서로 그의 字는 法衛이고 吳興 武康人이다. 저서로는 「집험방」 12권 외에도 「行記」 3卷이 있다.

隋代(서기 589-617)의 의서는 「巢氏病源」으로 이 의서는 病源이라고도 하는데 隋 煬帝 때(604-617) 太醫博士 巢元方 등이 찬한 「巢氏諸病源後論」 50卷을 말한다.²³⁾

唐代(서기 618-907)의 문헌은 「廣利方」, 「外臺秘要」, 「食醫心鑑」, 「產寶方」, 「食療」, 「必效方」, 「明堂經」, 「古今錄驗方」, 「千金方」, 「廣濟方」, 「茶經」, 「崔元亮海上方」 등이다. 「廣利方」은 「唐書」〈藝文志〉에 「德宗貞元集要廣利方 5

23) 四庫全書總目 卷103 子部 醫家類 1.

卷'이라고 하였으며, 日本의 多紀元胤의 「醫籍考」(第4卷)에 舊唐書德宗記를 인용하여 '貞元 12年 正月 上制貞元廣利藥方 586首 頒降天下라 하고 註에 다시 '其方數 63種, 586首'라 하였다. 「外臺秘要」는 唐 天寶 11년(752)王燾 撰한 의서로 모두 40권이다. 王燾는 鄆人으로 王珪의 손자이다.²⁴⁾ 이 의서는 宋 嘉祐 2년(1057)에 林億 등이 교정하고 卷首題를 썼다. 또한 治平 4년(1067)에 孫兆 등이 교정하였으며, 明 程衍道가 重刻하기도 하였다. 「食醫心鑑」과 「產寶方」은 唐 晁昫의 작품으로 본 의서에서 인용한 「產寶方」은 송대의 것인지 당대의 것인지는 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食療」와 「必效方」은 孟詵의 작품이다. 「食療」는 「食療本草」의 간략서명으로 본 의서에서는 「食療本草」 대신 저자의 이름이 孟詵과 食療로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다. 맹선이란 사람은 汝州 梁人으로 진사에 합격하여 鳳閣舍人에 천거되었으며, 睿宗 즉위후에 銀青光祿大夫에 加資되었다. 벼슬에 임해서 약업에 뜻을 두었으며, 항상 이르기를 “몸을 보호하고 성품을 기르려면 고운 말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좋은 약은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常曰, 保身養性者, 善言莫離口, 良藥莫離手)”고 하였다. 93세에 졸하였고, 저서로는 기재한 작품 외에 「補養方」 3권이 있다 「明堂經」은 唐의 許州扶溝人인 甄權의 저서 「明堂圖」를 말한 것이며 이 외에 「脈經針方」이 있다. 「古今錄驗方」은 甄權의 동생인 甄立言이 편찬한 의서이고 이밖에 「本草音義」가 있다. 「千金方」은 唐 孫思邈(581-682; 號 地仙)의 작품으로 「千金要方」이라고도 하며 중국최고의 임상실용백과전서라고 한다. 손사막은 인명이란 천금보다 중하므로 「천금방」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讀書敏求記」에 「千金方」과 「千金翼方」이 각 30권씩 실려 있다 「千金翼方」은 唐 孫思邈의 「千金方」을 보충한 책으로 宋 仁宗 때(1035년)에 高保衡, 林億 등이 교정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廣濟方」은 「新唐書」〈藝文志〉에 “玄宗開元廣濟方 5卷”이라 하였

24) 「外臺秘要」의 편찬년대가 「東醫寶鑑」에는 隋나라로 되어 있는데 「四庫全書總目」에는 唐代로 되어있다. 따라서 필자도 줄고인 “東醫寶鑑의 文獻的 研究”(書誌學研究 第11輯, 1995) 219에서 「동의보감」에 나타난 시대를 따라 隋代로 보았는데 사고전서총목에 나타난 시대로 정정한다. 唐書의 부록에 王燾의 할아버지인 王珪傳 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를 唐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舊唐書」〈玄宗紀〉에 “開元 11年 9월에 上이 撰한 「광제방」을 천하에 頒賜하고 이어 諸州로써 醫博士 1人을 두게한다.”라고 하였다. 본 의서는 조선 태종 12년(1412) 8월에 사관 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사고의 서책을 춘추관에 이장케 했는데 그 중에 의서가 9종이 있었다.²⁵⁾ 그 9종 중 1종이다. 「茶經」은 756-761년 경 陸羽(?-804)가 저술한 3권으로 중국최초의 茶葉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3권 10편으로 나누어 중국의 차의 역사, 차생산지, 품종, 생산도구 및 품종 채취가 공법, 끓이는 방법, 부록으로 각종 茶具圖解가 기재되어 있다.

宋代(서기 960-1264)의 의서는 「脚氣治法總要」, 「簡要濟衆方」, 「本事方」, 「婦人大全良方」, 「產寶方」, 「三因方」, 「聖濟總錄」, 「聖惠方」, 「日華子」, 「直指方」, 「養老奉親書」, 「神巧萬全」, 「通眞子傷寒」, 「川玉集傷寒論」, 「洗冤錄」, 「銅人經」, 「傷寒類書」, 「袖珍方」, 「衍義」(本草), 「醫方大成」, 「濟生方」, 「五臟論」, 「衛生十全方」, 「資生經」, 「千金翼方」, 「和劑方」 등 다수가 인용되었다. 이 중 「脚氣治法總要」는宋代에 董汲(字 及之)가 저술한 의서이며 「簡要濟衆方」은 周應 등이 저술한 의서로 현전하지 않는다. 「本事方」은 許叔微의 저서이다. 그는 白沙人으로 字는 知可이며, 本事方외에 「傷寒辨義」가 있다. 「婦人大全」은 「婦人大全良方」으로 陳自明이 1237년(高麗 高宗 24)에 지은 산부인과의 전문의서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조 세종 12년(1430) 3월 18일 상정소에서 취재과목 목록을 보고한 내용 중에 본 의서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훨씬 그 이전부터 수입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產寶方」은 宋 郭稽中, 중국최초의 산부인과 의서는 853-858년경 咎殷이 찬한 經效產寶이다. 이 책은 상, 중, 하 3권으로 41문으로 나누어 모두 276방이 소개되어 있다. 初名이 產寶이다. 「產寶諸方」은宋代의 산부인과 의서로 저자미상이며, 「宋史」〈藝文志〉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永樂大典」에는 70여 처방이 소개되어 있다. 「三因方」은 宋 陳言(字 無擇) 원명은 三因極一病證方論으로 18卷 입,

25) 태종 12년(1412)에 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충주사고의 책을 춘추관에 내려 간직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의서가 〈小兒集氏病源候論〉 〈五臟六腑圖〉 〈新雕保童秘要〉 〈廣濟方〉 〈陳郎中藥名詩〉 〈神農本草圖〉 〈本草要括〉 〈王叔和脈訣口義辯誤〉 〈黃帝素問〉 등 9종이 포함되어 있었다.(朝鮮王朝實錄. 太宗 12年 8月 己未. 卷 24. 책 1. 646.)

이 책은 三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一은 內因, 즉 七情을, 二는 外因으로 六淫을 나타내고, 三은 不內外因으로 飲食飢飽나 氣가 상하고 毒이 오르거나 金瘡 등을 다루었다. 「聖濟總錄」과 「聖惠方」은 太宗의 勅으로 편찬한 의서이며, 「日華子」는 日華子本草라고도 하며 諸家本草라고도 한다. 이는 日華子자의 저서로 宋 開寶年間의 明人이며, 성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日華子자라고 한다. 「直指方」은 仁齋直指라고도 하는데, 이는 楊士瀛의 저서로 그의 자는 登父이며, 호는 仁齋이다. 「養老奉親書」는 宋 陳直이撰한 것으로 元 鄒鉉이 증보하여 「壽親養老新書」라고 하였다. 「壽親養老新書」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陳直의 「養老奉親書」이고 2권부터는 鄒鉉이 元 成宗 大德年間(1297-1307)에 증보한 것이다. 현재 「養老奉親書」는 「文獻通考」에 실려있다. 「神巧萬全」과 「通眞子傷寒」은 劉元賓의 저서로 현전하지 않으며, 「川玉集傷寒論」은 宋代의 의서로 저자미상이다. 隋·唐志에는 없고, 「崇文總目」에 「1卷, 宋志不著撰人이라 하여 宋代의 醫書로 보인다. 본 「鄉藥集成方」의 傷寒論 중에는 「川玉集傷寒」과 「川玉傷寒論」으로 인용되었다. 「通眞子傷寒」은 劉元賓의 저서로 그의 號가 通眞子이다. 「洗冤錄」은 1247년 宋慈가 찬한 것으로 「洗冤集錄」 5권을 말한다. 송자는 중국제일의 법의학자로 자는 惠父이며 建陽人이다. 「五臟論」은 宋 張仲卿의 저술로 우리나라에서 고려 문종 12년 9월에 충주목에서 新雕한 「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18論」을 張仲景의 「五臟論」 99편과 함께 올리자 문종이 秘閣에 보관케 하기도 하였다. 「衛生十全方」은 夏德懋의 저서로 현전하지 않는다. 「和劑方」은 陳師文이 「和劑局方」 5권을 교정한 「太平惠民和劑局方」 10권을 말 한다.

金代의 의서로는 「保童秘要」, 「脾胃論」, 「宣明論」 등이 인용되었다. 「醫方類聚」나 「東醫寶鑑」에서는 「素問玄機」, 「原病式」, 成無己의 「明理論」, 張從正의 「儒門事親書」 등이 인용되었으나 본서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다. 「保童秘要」는 劉宗素의 작품으로 이 두 책은 현전하지 않는다. 「脾胃論」은 李杲의 저서이다. 李杲는 자가 明之이고 호가 東垣老人으로 鎭定人이다.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고 經史에 박식했으며, 의술에 뛰어 났다. 張元素에게 의술을 배웠으며, 저술로는

「內外傷辨惑論」3권과 「蘭室秘藏」3권 등이 있다. 「동의보감」〈역대의방〉에는 李杲가 元代 의 인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李杲의 저술이 元史에 실려 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李杲는 金 世宗 大定 20년 庚子生(1180)으로 金이 망할 때 나이가 55세였다. 그가 사망할 때가 72세이니까 辛亥年 元 17년(1251)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고는 금·원 두 시대를 다 누린 인물이다. 「동의보감」〈역대의방〉에서 그의 작품이라고 하는 「東垣十書」는 東垣의 제자인 王好古의 작품 「湯液本草」, 「此事難知」까지 포함한 것이다.²⁶⁾ 「宣明論」은 본서명이 「精要宣明論」으로 劉完素의 저서이다. 完素는 河間人으로 자가 守眞이며, 호를 스스로 通元處士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박학하였으며, 갑자기 異人을 만나 술을 마시고 대취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의술에 통달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그의 저서로는 「宣明論」외에 「素問玄機」, 「原病式」, 「傷寒直格方」3卷 「傷寒標本心法類萃」, 「病機氣宜保命集」3卷 등이 있다. 「素問玄機」과 「原病式」이 「동의보감」〈역대의방〉에는 별도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전서총목」에는 2종이 「素問元機原病式」1권으로 되어 있다.

元代の 의서로는 「經驗秘方」, 「經驗良方」, 「湯液本草」, 「御藥院方」, 「本草衍義」, 「衛生寶鑑」, 「得效方」, 「永類鈴方」, 「外科精義」, 「瑞竹堂方」, 「醫方集成」, 「修月魯般經」 등을 본 의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외에 「醫家大法」, 「醫壘元戎」, 「丹溪心法」, 王珪의 「養生主論」 등도 元代の 의서인데²⁷⁾ 본 「集成方」과 「의방유취」에서는 인용되지 않았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인용되었다. 「經驗秘方」과 「經驗良方」은 저자미상으로 현전하지 않는다. 「湯液本草」는 王好古의 저서로 字가 進之이며, 호는 海藏, 古趙人으로 趙州의 敎授에 임용되었다. 經史에 능통하고 醫方을 좋아하여 李東垣에게 師事받아 名의가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탕액

26) 「東垣十書」는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3권과 「蘭室秘藏」3권, 「脾胃論」, 宋 崔嘉彦의 「脈訣」, 朱丹溪의 「局方發揮」, 「格致餘論」, 元 王履의 「溯洄集」, 元 王好古의 「湯液本草」, 「此事難知」, 元 齊德之의 「外科精義」 등을 말한다. 이 책은 成宗 19년(1481) 11월에 동지 중추부사 成建이 明에서 가져와 內醫院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27) 「東醫寶鑑」〈歷代醫方〉에서는 劉純의 玉機微義도 원대의 의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서는 명조의 의서이다. 이 책은 명조에 徐用誠이 저술한 것을 劉純이 증보한 것이다. 용성의 자는 彦純이며, 會稽人이다. 劉純의 자는 宗厚이다.

본초」 외에 醫家大法, 醫壘元戎, 仲景詳辨, 活人節要歌括, 此事難知, 斑疹論, 光明論, 標本論, 小兒弔書, 傷寒辨惑論, 守眞論, 十二經絡圖 등 다수가 있다. 「御藥院方」은 본서명이 「惠民御藥院方」으로 元 許國禎(字 進之) 등이 편찬한 의서이다. 「本草衍義」는 朱震亨의 저서로 자는 彦修이며, 丹溪先生이라고도 한다. 元末 婺의 義烏人으로 저서로는 이 외에 「동의보감」에 인용된 「丹溪心法」과 「日用纂要」, 「格治餘論」, 「局方發揮」, 「傷寒辨疑」, 「補遺外科精要論」 등이 있다. 「衛生寶鑑」은 羅天益의 저서로 그의 자는 謙甫이고, 東垣先生의 高第이며, 元의 眞定人이다. 저서로는 「위생보감」 외에 「藥誤永鑑」, 「藥類法象」 등이 있다. 「得效方」은 「世醫得效方」 19卷을 말하는 것으로 危亦林이 저술한 의서이다. 그의 호는 達齋, 元 때 의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永類鈴方」은 李仲南의 저서로 자는 棲季²⁸⁾, 호는 碧山, 元의 天池人이다. 外科精義는 2卷으로 齊德之가 저술한 의서이다. 그는 당시 의학박사로 御藥院의 太醫를 역임하였다. 「瑞竹堂方」은 元의 沙圖穆蘇가 찬한 의서로 원서명이 「서죽당경험방」이다. 이 의서는 본래 15권이었는데 楊士奇 등이 文淵閣書目에 1部 1冊을 등재하고 晁堞이 寶文堂書目에 그 서명을 열거하였다. 明 중엽까지 原帙이 있었으나 점차로 줄어들어 현재는 5권으로 「永樂大典」에 실려 있다. 「醫方集成」은 元 孫允賢의 작품이다. 「修月魯般經」은 저자미상으로 현전하지 않고 있으나 「의방류취」에도 인용되어 있다. 「居家必用」은 明代의 王綸의 작품이다. 「經驗良方」의 경우는 3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앞에서 밝혔듯이 元代의 작품이 있으며, 「東醫寶鑑」에는 明代 鄒福의 저술로 되어 있고, 「사고전서총목」권105 子部 醫家類存目에는 明 陳仕賢이 11卷을 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사현은 福淸人으로 자가 邦憲이다. 진사현이 嘉靖 壬戌年(1562)에 進士인 것으로 봐서 본 「鄉藥集成方」에서는 진사현의 「경험양방」을 인용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우리나라의서로는 고려 때의 의서 「濟衆立效方」, 「鄉藥惠民方」, 「御醫撮要」, 「鄉藥古方」, 「三和子方」, 「鄉藥救急方」과 조선 초의 의서 「鄉藥簡易方」, 「鄉藥

28)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는 李仲南의 字가 棲季로 되어 있는데, 「醫學入門」의 歷代醫學姓氏에는 季로 되어있다

濟生集成方」(본서에서는 集成方으로 기재하였음), 「本朝經驗方」, 「東人經驗方」 등이다. 「濟衆立效方」은 고려 仁宗·毅宗년간에 金永錫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본서의 風門, 中風半身不隨條에 1회밖에 인용되지 않았다. 「鄉藥惠民方」은 조선 태조 2년(1393) 1월에 全羅道按廉使 金希善이 도평의사에 보고한 글에서 각도에 의학교수 한 사람씩을 보내어 「鄉藥惠民經驗方」을 학습케 하라고 한데서 고려 때의 의서로 보인다. 「御醫撮要」는 고려 고종 13년에 崔宗峻이 편찬한 의서이다. 李奎報의 서문에 의하면 본서의 藍本으로 茶房에서 편찬한 藥方이 이미 있었는데, 그 方書 중에 신호한 방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로 인하여 거의 탈루되고 없어져서 崔宗峻이 애석히 생각하고 高宗의 재가를 얻어 2권으로 나누어 다시 제방의 가장 중요한 것을 첨부하여 新集御醫撮要方이라 칭하고 곧 평양유수에게 보내 간인반포케 하였다고 한다.³⁰⁾ 「鄉藥救急方」은 현존하는 유일한 책으로 고려 고종 23년경(1236)에 江華島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그후 조선 태종 17년 7월(1417)에 경상도 義興縣에서 중간하였다. 현재 日本宮內廳書陵部に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³¹⁾ 「鄉藥古方」은 본서에서 4곳이 인용되었으나 저자미상이며, 시대는 고려로 추측된다. 「三和子方」과 「鄉藥簡易方」, 「東人經驗方」은 「鄉藥濟生集成方」의 權近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그 서문에 의하면, “국가의 풍습이 약초로 병을 치료하여 그 효험이 있었다. 일찍이 「三和子藥方」이 있었는데 간략하여 權仲和가 徐贊에게 명하여 「簡易方」을 저술토록 하였으나, 그 책이 오히려 세상에 성행치 못하므로 국초에 제생원을 설치하고 官藥局官에 명하여 여러 방서를 고찰하고 또한 經驗方을 수집하여 「향약제생방」을 편찬하고 거기에 牛馬醫方까지 첨가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삼화자방」은 시대적으로 고려 말로 보이며 「鄉藥簡易方」은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상으로 「향약집성방」에 인용문헌으로 사용된 의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당·송·금·원의 문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우리고

29)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66), 137.

三木榮, 朝鮮醫書誌 高麗醫書 金永錫 墓誌(國立博物館藏)

30) 東國李相國集 卷21, 御醫撮要方序.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66), 137.

31) 金斗鍾, 「韓國醫學史」(서울: 探求堂, 1966), 141.

유의 의서는 인용문헌 중 「集成方」이란 명칭을 「향약제생집성방」으로 보았을 때 10종에 달한다. 「동의보감」에서 「의방유취」, 「의림촬요」, 「향약집성방」 3종을 인용한 것에 비하면 본 의서에서는 우리 의서의 인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引用文獻 記載方法

인용서의 채기방법은 다양하다. 저자가 먼저 인용하고자 하는 문헌을 문두에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서명 말미에 ‘方’자를 거의 생략한 경우가 많으며, 서명, 인명, 성씨 등을 혼용하거나 本書名을 기록하지 않고 축약서명으로 기록했다던가 아니면 서명 중에 글자를 도치시켜 기록한 면도 보인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는 성씨 단독으로 기재하거나 성씨를 붙여 기재하는 방법이다. 즉, 요씨, 유씨, 최씨, 양씨가장방, 양씨방, 양씨산유, 왕씨간이방, 왕씨이간방, 왕씨박제방, 왕씨제중방, 요씨방, 최씨해상방 등이다. 이는 저자의 이름과 서명을 동시에 밝히려는 의도인 듯하다. 둘째는 글자를 도치시킨 경우다. 간이방, 이간방, 왕씨간이방, 왕씨이간방, 향약간이방, 향약이간방 등 뜻이 같다하여 혼용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서명을 축약한 경우이다. 「연의본초」를 연의로, 「백일선방」을 백일방으로, 「최원량해상방」을 최원량방 등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넷째는 서명이 누구의 작품인지 구분이 애매한 점도 있다. 海上方으로 표현한 것은 최원량해상방인지, 경험해상방인지 구분할 수 없다. 또한 集驗이라고만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宋代의 吳得夫가 저술한 吳氏集驗方인지 朱佐가 저술한 朱氏集驗方인지 아니면 元代의 王東野가 저술한 王氏集驗方인지 실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자명만 기록한 경우도 그렇다. 손진인, 맹선, 장중경, 장문중, 심존중, 진사량 등이다. 이는 이들의 저서가 한 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의서를 참고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서로 동일한 의서이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것끼리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본바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의서가 많다. 그러나 「향약간이방」과 「향약이간방」은 동일의서로 서로 혼용해서 사용한 것 같다. 또한 <향약본초>

부분에서는 문장 사이사이에 日華子云..., 圖經云... 형식으로 인용하고 있어서 인용처 구분이 확실치 않다.

<표 1> 引用文獻記錄例

簡易方(易簡方), 經驗方(本朝經驗方, 東人經驗方), 救急方(御藥救急方), 澹寮方(澹寮集驗秘方), 譚氏(譚氏方, 譚氏小兒方), 百一方(百一選方), 孫尙藥救急(孫尙藥方), 孫眞人(孫眞人備急, 孫眞人食忌, 孫眞人枕中記), 新註(新註銅人經), 十全博救方(十全方, 十全補救), 沈存仲(沈存仲筆談), 野人閑話(野人閑話朱眞人靈驗篇), 楊氏家藏方(楊氏方, 楊氏產乳, 楊損之), 王氏簡易方(王氏易簡方), 姚大夫(姚氏, 姚氏方, 姚和衆), 錢相公(錢相公篋中方, 錢氏方, 錢氏小兒方), 陳藏器(陳藏器本草, 陳藏器序), 集成方(鄉藥濟生集成方), 崔元亮方(崔元亮海上方, 崔氏, 崔氏海上集, 經驗海上方, 海上方, 海上名方, 鄉藥簡易方, 鄉藥易簡方).

<표 1>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용문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술에 참여한 인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인용문헌을 기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본서의 각 병문별로 인용된 인용문헌의 빈도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용했던 의서와 중요시했던 의서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引用頻度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인용문헌과 인용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인하여 여러 가지 효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의서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둘째는 이미 망실된 의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이를 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는 본 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 및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넷째는 병이 발생했을 때 병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의서들이 애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는 당시 의학의 발전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당시 저자들이 작품을 쓰면서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는 반드시 인용처를 밝혀둔다는 점에서 오늘날 모든 학자

들의 귀감이 된다는 것이다.

본 의서의 인용서는 앞서도 밝혔듯이 300여종으로 이들의 의서가 어느 병문에서 주로 인용이 되었는지를 각 병문별로 인용서와 인용회수를 조사하고 말미에 종합하여 총 인용서와 인용회수를 밝혀보고자 한다.

1) 風病門

본 풍병문은 앞서도 밝혔듯이 제1권 中風失音不語, 中風口噤不開부터 제4권 風白駁 까지 41개 항목으로 내과분야의 병의 원인과 증상 및 치료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본 풍병문을 편성하면서 저자가 밝힌 인용문헌은 1권에서 38종, <2권>에서 새로운 문헌 18종, 3권에서는 11종, 4권에서는 1,2,3권에서 인용하지 않은 11종의 의서를 더 인용하여 총 78종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문헌은 성혜방(78회)과 자생경(28회), 주후방(15회) 순이며, 중 1회씩 인용된 의서가 36종이다.

본 풍병문에서는 우리나라 의서인 鄉藥古方, 鄉藥救急方, 鄉藥易簡方, 鄉藥惠民方 등이 각각 1회씩 인용되었으며, 三和子方이 8회, 本朝經驗方이 3회나 인용되었다.

<표 2> 풍병문 인용서 및 인용빈도

<제1권>聖惠方 78, 千金方 24, 資生經 22, 肘後方 15, 聖濟總錄 8, 經驗良方 8, 得效方 8, 直指方 7, 本草 7, 經驗秘方 7, 玉龍歌 6, 養老奉親書 5, 經驗後方 5, 簡易方 5, 烟霞聖效方 4, 瑞竹堂方 4, 衛生寶鑑 4, 宣明論 3, 衍義 3, 朱氏集驗方 3, 食醫心鏡 3, 濟生方 2, 斗門方 2, 海上名方 2, 簡要濟衆方 2, 兵部手集 2, 濟衆方 2, 食療 2, 衛生十全方 1, 經驗後集 1, 古今錄驗方 1, 東垣用藥珍珠囊 1, 良濟備急 1, 孫眞人 1, 金匱鉤玄 1, 孫尙藥救急 1, 劉禹錫傳信方 1, 事林廣記 1, <제2권>三和子方 8, 外臺秘要 7, 百一選方 7, 御藥院方 3, 三因方 3, 神效名方 3, 千金翼方 3, 圖經 2, 新效方 2, 袖珍方 2, 勝金方 1, 食醫心鑑 1, 經驗方 1, 聖效方 1, 廣利方 1, 嚴氏濟生方 1, 小品 1, 永類鈴方 1. <제3권>本朝經驗 3, 集驗方 3, 孟詵 3, 陳藏器 2, 崔元亮方 1, 濟衆立效方 1, 外臺延年方 1, 鄉藥古方 1, 圖經本草 1, 和劑方 1, 本事方 1. <제4권>初虞世 1, 居家必用 1, 瘡科精義 1, 鄉藥救急方 1, 鄉藥易簡方 1, 夏禹神仙經 1, 張仲景 1, 北夢鎖言 1, 東垣試效方 1, 鄉藥惠民方 1, 崔氏海上集 1.
--

특히 濟衆立效方이 유일하게 본 병문에서 1회 인용되었다.

2) 傷寒門

상한문은 제5권 可汗形證부터 제8권 傷寒後雜病 56개의 항목과 및 부록으로 不可灸形證 까지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 상한문 인용서 및 인용빈도

聖惠方 74, 聖濟總錄 50, 肘後方 18, 傷寒指掌圖 12, 千金方 11, 外臺秘要 9, 傷寒論 8, 衛生方 7, 梅師方 6, 拔粹方 6, 傷寒類要 5, 得效方 5, 經驗秘方 4, 袖珍方 4, 經驗良方 4, 三因方 3, 百一選方 3, 烟霞聖效方 3, 神效名方 3, 川玉集傷寒論 3, 和劑方 3, 永類鈴方 3, 孫真人 2, 活人書 2, 陳藏器 2, 經驗方 2, 簡易方 2, 本草衍義 2, 巢氏病源 2, 張子和 1, 鄉藥惠民方 1, 孟詵 1, 活人總括 1, 必用之書 1, 孫用和 1, 本朝經驗 1, 勝金方 1, 傷寒類書 1, 本草 1, 食療 1, 傷寒明理論 1, 集驗方 1, 通眞子傷寒 1, 澹寮方 1, 南陽活人書 1, 張仲景 1, 兵部手集 1, 食醫心鏡 1, 資生經 1, 玉龍歌 1.
--

본 상한문에서 인용된 의서는 모두 50종으로 이중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을 순차적으로 보면 聖惠方 (74), 聖濟總錄 (50), 肘後方 (18), 傷寒指掌圖 (12), 千金方 (11), 外臺秘要 (9), 傷寒論 (8), 衛生方 (7), 梅師方 (6), 拔粹方 (6), 傷寒類要 (5), 經驗秘方 (4), 袖珍方 (4), 烟霞聖效方 (3), 神效名方 (3), 和劑方 (3), 孫真人 (2), 活人書 (2), 陳藏器 (2), 簡易方 (2) 순이다. 聖惠方이나 聖濟總錄은 상한병의 원인 및 증상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되었으며, 肘後方 및 傷寒指掌圖 등의 의서는 치료법에, 천금방은 대부분 침구법에 인용되었다. 우리나라 의서인 본조경험방과 향약해민방이 각각 1회씩 인용되었다.

다음은 제9권 열병문, 서한문, 습병문과 제10권 적열문, 학병문에 인용된 문헌에 대해서 그 빈도수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3) 熱病門, 暑寒門, 濕病門, 積熱門, 瘧病門

熱病門은 熱病頭痛, 熱病煩燥, 熱病狂言 등 19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暑寒門은 一切暑熱과 鍼灸法, 濕病門은 一切淫病, 積熱門은 積熱諸證, 瘧病門은 寒瘧, 溫瘧 등 17개 항목과 鍼灸法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의 병문에 인용된 문헌을 보면,

<표 4> 熱病門, 暑寒門, 濕病門, 積熱門, 瘧病門(제9권-10권)

<열병문>聖惠方 39, 千金方 1, 三和子方 1, 巢氏病源 1.<서병문>醫方大成 1, 千金方 1, 聖濟總錄 1, 山居四要 1, 簡奇方 1, 衛生續方 1, 得效方 1, 和劑方 1, 百一選方 1, 經驗秘方 1, 經驗良方 1, 洗冤錄 1, 三和子方 1, 金匱方 1, 本草衍義 1, 子母秘錄 1, 食療 1, 本朝經驗 1, 得效方 1, 玉龍歌 1.<습병문>醫方大成 1, 得效方 1, 三因方 1, 聖惠方 1, 烟霞聖效力, 脾胃論 1, 新效方 1, 直指方 1, 本朝經驗 1.<적열문>醫方大成 1, 經驗秘方 1, 廣利方 1, 千金方 1, 必效方 1, 拔粹方 1, 聖濟總錄 1, 衛生寶鑑 1, 和劑方 1, 三和子方 1, 袖珍方 1, 永類鈴方 1, 圖經 1, 得效方 1, 聖惠方 1, 食醫心鏡 1, 鄉藥易簡方 1.<학질문>聖惠方 10, 聖濟總錄 26, 直指方 3, 千金方 2, 肘後方 2, 經驗良方 2, 得效方 1, 集驗方 1, 經驗秘方 1, 外臺秘要 1, 易簡方 1, 孫真人 1, 本草 1, 子母秘錄 1, 王氏博濟方 1, 三因方 1, 百一選方 1, 山居四要 1, 衛生十全方 1, 鄉藥救急方 1, 鄉藥惠民方 1, 鄉藥易簡方 1, 資生經 1, 東人經驗 1.

제9권 열병문에서는 인용된 문헌이 모두 4종으로 聖惠方 이 39 회이고 나머지 千金方, 三和子方, 巢氏病源 등이 각각 1회씩 인용되었다. 서한문에서는 모두 19종으로 醫方大成, 千金方, 聖濟總錄, 山居四要, 簡奇方, 衛生續方 등 각각 1회씩 인용되었으며, 습병문에서는 모두 9종으로 醫方大成, 得效方, 三因方, 聖惠方 등 각각 1회씩 인용되었다. 제10권 적열문에서는 17종을 각각 1회씩 인용되었으며, 학병문은 24종이 인용되었는데 이 중 聖濟總錄(26), 聖惠方 10, 直指方 3, 千金方 2 순으로 인용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의서인 三和子方, 鄉藥救急方, 鄉藥惠民方, 鄉藥易簡方, 東人經驗, 本朝經驗 등이 각 1회씩 인용되었다.

4) 脚氣門-黃病門

제11권 각기문 10개 항목과 침구법, 제12권 요통문 7개 항목과 침구법 부록으로 수족병 및 침구법, 광란문 4개 항목, 제13권은 12권에 이어 광란문 9개 항목과 침구법, 眩暈門의 현훈제증과 침구법, 제14권은 諸虛門의 일체제허문 및 침구법, 제15권은 驚悸門의 경계제증과 침구법 및 부록으로 善笑와 침구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어서 虛損門에서는 虛勞不得眠과 침구법 虛勞夢與鬼交, 虛勞夢泄과 침구법 등 13개 항목에 각각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제16권은 癆瘵門의 4개 항목과 침구법, 제17권은 水病門의 4개 항목 및 침구법, 제18권 황병문은 26개 항목과 침구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병문에 인용된 의서들은,

<표 5> 脚氣門-黃病門(제11권-제18권)

제11권 聖惠方 140, 聖濟總錄 45, 千金方 31, 資生經 18, 肘後方 15, 直指方 14, 得效方 14, 外臺秘要 14, 百一選方 13, 經驗秘方 12, 食醫心鏡 12, 三因方 11, 經驗良方 10, 醫方集成 9, 本朝經驗 9, 經驗後方 7, 朱氏集驗方 7, 陳藏器 7, 養老奉親書 7, 斗門方 6, 三和子方 6, 孫真人 6, 拔粹方 6, 居家必用 5, 鄉藥易簡方 5, 和劑方 5, 澹寮方 5, 食療 5, 玉龍歌 5, 食醫心鑑 4, 梅師方 4, 巢氏病源 3, 千金翼方 3, 廣利方 3, 本草衍義 3, 圖經 3, 日華子 3, 事林廣記 3, 本草 3, 東人經驗 3, 烟霞聖效方 3, 簡要濟衆方 3, 衛生寶鑑 2, 鄉藥惠民方 2, 鄉藥救急方 2, 東垣試效方 2, 經驗方 2, 簡易方 2, 瑞竹堂方 2, 御醫撮要 2, 本事方 2, 御藥院方 2, 宣明論 2, 永類鈴 2, 良濟方 1, 脚氣治法總要 1, 良濟備急方 1, 瑣碎錄 1, 修真神仙方 1, 崔元亮海上方 1, 神效名方 1, 張仲文傳 1, 易簡方 1, 醫方大成 1, 袖珍方 1, 嚴氏濟生方 1, 新效方 1, 道書八帝聖化經 1, 太清諸草木方 1, 服氣精義 1, 抱朴子 1, 孫真人枕中記 1, 衛生十全方 1, 孟詵 1, 王氏易簡方 1, 張仲景 1, 子母秘錄 1, 經驗海上方 1, 本草衍義 1, 勝金方 1, 崔氏 1, 兵部手集 1, 唐韋宙獨行方 1, 本草衍義備急方 1.

제11권 각기문에서부터 제18권 황병문까지 총 84 종의 의서를 인용하였다 이 중 성혜방, 성제총록, 천금방, 자생경, 득효방, 외대비요, 백일선방, 경험비방, 식의심경 등이 주로 인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의서로는 본조경험이 9회, 삼화자방 6회, 향약이간방 5회, 동인경험 3회, 향약혜민방, 어의촬요, 향약구급방 등이 2회로 비교적 많이 인용되었다. 또한 향약집성방 전체적으로 1회 인용된 의서인 良濟方, 脚氣治法總要, 瑣碎錄, 修真神仙方, 張仲文傳, 道書八帝聖化經, 太清諸草木方, 服氣精義, 唐韋宙獨行方, 本草衍義備急方 등이 본 병문에 포함되어 있다.

5) 大小便門-諸疝門

제19권 대소변문부터 제21권 諸疝門까지의 인용서를 조사하면, 제19권, 20권은 대소변문으로 14개 항목과 각 침구법이, 이어서 諸淋門이 21권까지 8개 병증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諸疝門에서는 6개 항목과 각 침구법이 기록되어 있다.

본 병문들에 인용된 인용문헌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61종의 의서를 인용했으며,

<표 6> 大小便門-諸疝門(제19권-21권)

聖惠方 54, 聖濟總錄 15, 千金方 15, 資生經 14, 經驗良方 12, 得效方 11, 外臺秘要 11, 肘後方 7, 三和子方 7, 直指方 6, 經驗秘方 4, 三因方 4, 和劑方 4, 陳藏器 4, 斗門方 4, 姚氏方 4, 玉龍歌 4, 袖珍方 3, 朱氏集驗方 3, 永類鈴 3, 居家必用 2, 養老奉親書 2, 宣明論 2, 百一選方 3, 鄉藥救急方 3, 食醫心鑑 3, 經驗方 3, 神效名方 3, 本朝經驗 2, 簡要濟衆方 2, 簡易方 2, 澹寮方 2, 衛生寶鑑 2, 圖經 2, 本草衍義 2, 廣利方 2, 楊氏家藏方 2, 梅師方 2, 纂圖方 1, 陶隱居 1, 食醫心鑑 1, 葛氏方 1, 嚴氏濟生方 1, 衛生續方 1, 拔粹方 1, 金匱方 1, 茆亭客話 1, 陳室中方 1, 孫真人 1, 本草 1, 古今錄驗 1, 崔元亮海上方 1, 靈苑方 1, 千金翼 1, 集驗方 1, 勝金方 1, 修真秘旨 1, 烟霞聖效方 1, 食療 1, 初虞世 1, 藥性論 1.

인용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성혜방, 성제총록, 천금방, 자생경, 득효방, 외대비요 순이다. 우리나라 의서로는 삼화자방이 7회, 향약구급방이 3회, 본조경험 2회가 인용되었다. 천금방, 자생경 등은 주로 침구법에서 인용되었다. 그리고 약성론은 총 202회의 인용빈도 중에서 본 병문에서 1회 인용되었고, 약성론 역시 총 258회 인용중에서 단 1회 인용되었다. 楊氏家藏方은 총 2회 인용되었는데 본 병문에서 2회 모두 인용되었으며, 총 1회중 본 병문에서 1회 인용된 의서는纂圖方, 茆亭客話, 陳室中方 등이다.

6) 積聚門, 心痛門

제22권 적취문은 13개 항목과 침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3권 심통문은 5개 항목과 침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積聚門, 心痛門(제22권-23권)

易簡方 3, 聖惠方 26, 聖濟總錄 9, 千金方 11, 醫方集成 4, 朱氏集驗方 3, 經驗方 3, 肘後方 6, 經驗良方 4, 居家必用 2, 御藥院方 2, 資生經 6, 澹寮方 3, 千金翼 1, 陳藏器 2, 外臺秘要 5, 烟霞聖效方 3, 三和子方 3, 簡易方 1, 得效方 1, 宣明論 2, 經驗秘方 2, 食醫心鑑 1, 梅師方 1, 食療 2, 斗門方 1, <心痛門> 嚴氏濟生方 1, 瑞竹堂方 1, 拔粹方 1, 金匱鉤玄 2, 永類鈴 1, 衛生十全方 1, 袖珍方 2, 簡要濟衆方 1, 圖經 1, 姚和衆 1, 孫真人備急 1, 孟詵 1, 兵部手集 2, 本草 2, 藥性論 1, 養老奉親書 1, 百一選方 2, 醫林方 1, 御醫撮要 1, 金匱方 2, 崔氏 1, 崔元亮海上方 1, 鄉藥惠民方 1, 鄉藥救急方 1, 食醫心鑑 1, 孫真人 1, 本朝經驗 1, 玉龍歌 1, 三因方 3, 葛氏方 1, 百要方 1, 本草衍義 1.

이 부분은 58종이 인용되었으며, 성혜방, 천금방, 성제총록 순이다. 심통문에서는 22권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 32종이 더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로는 삼화자방 3회, 어의촬요, 향약혜민방, 향약구급방, 본조경험방이 각 1회씩 인용되었다.

다음은 제24권부터 제25권 까지 諸咳門, 諸氣門, 痰飲門 에 인용된 인용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7) 諸欬門, 諸氣門, 痰飲門

諸欬門은 제24권부터 25권까지 7항목과 침구법, 諸氣門은 2항목과 침구법, 痰飲門 은 8개 항목과 침구법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표 8> 諸欬門, 諸氣門, 痰飲門(제24권-25권)

聖惠方 30, 聖濟總錄 12, 千金方 9, 肘後方 7, 三因方 6, 得效方 5, 百一選方 4, 經驗良方 4, 食醫心鏡 4, 資生經 4, 養老奉親書 4, 袖珍方 3, 烟霞聖效方 3, 居家必用 3, 簡易方 3, 和劑方 3, 簡易方 2, 御醫撮要 2, 新效方 2, 本草衍義 2, 拔粹方 2, 朱氏集驗方 2, 食療 2, 衛生十全方 2, 本朝經驗 2, 醫林方 2, 梅師方 2, 神效名方 1, 宣明論 1, 嚴氏濟生方 1, 集驗方 1, 十全博救方 1, 孫眞人 1, 鄉藥惠民方 1, 鄉藥救急方 1, 張氏六門方 1, 玉龍歌 1, 孟詵 1, 金匱鉤玄 1, 經驗秘方 1, 簡要濟衆方 1, 外臺秘要 1, 食醫心鑑 1, 鄉藥古方 1, 內外傷辨 1/1, 楊氏產乳 1, 鄉藥易簡方 1, 瑞竹堂方 1, 御藥院方 1, 澹寮方 1, 衛生寶鑑 1, 王氏博濟方 1, 金匱方 1, 直言治病方 1/1, 經驗方 1, 靈苑方 1.
--

이 부분에서는 인용문헌이 총 56종이 인용되었다. 그 중 성혜방, 성제총록이 12회 이상이고, 천금방이 9회 주후방 7회, 득효방 5회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서로는 어의촬요, 본조경험이 2회, 향약혜민방, 향약구급방, 향약고방, 향약이간방이 각각 1회씩 인용되었다.

8) 嘔吐門, 噎膈門, 脾胃門, 蟲毒門

제26권 구토문과 噎膈門, 제27권 脾胃門, 蟲毒門 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인용된 의서는 제26권부터 27권까지는 총 55종이 인용되었으며, 성제총록, 성혜방, 천금

방 등이 10회 이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인용되었다.

<표 9> 嘔吐門, 噎隔門, 脾胃門, 蠱毒門(제26권, 제27권)

聖濟總錄 13, 聖惠方 11, 千金方 10, 資生經 6, 肘後方 5, 經驗良方 5, 得效方 4, 外臺秘要 4, 衛生十全方 3, 袖珍方 2, 食醫心鏡 2, 孟詵 2, 本草衍義 1, 食醫心鑑 2, 養老奉親書 2, 百一選方 4, 醫方集成 3, 居家必用 3, 三和子方 3, 兵部手集 3, 巢氏病源 2, 張仲景 2, 玉龍歌 2, 直指方 2, 拔粹方 2, 經驗秘方 2, 經驗方 1, 簡要濟衆方 1, 近效方 1, 山居四要 1, 三因方 1, 修月魯般經 1, 東人經驗 1, 永類鈴 1, 孫尚藥方 1, 陳藏器 1, 金匱玉函 1, 孫真人 1, 陶隱居 1, 本朝經驗 1, 鄉藥救急方 1, 明堂經 1, 張先生 1, 和劑方 1, 衛生寶鑑 1, 東垣試效方 1, 經驗後方 1, 金匱方 1, 御醫撮要 1, 唐本註 1, 日華子 1, 食療 1, 金匱鉤玄 1, 朱氏集驗方 1, 楊氏產乳 1.

우리나라 의서로 삼화자방 3회, 어의촬요, 동인경험, 본조경험, 향약구급방 등이 1회씩 인용되었다.

제28권부터 29권 중반까지는 衄血門이며, 제29권 중반부터 30권 전반부까지는 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병문을 편성하는데 필요로 한 인용서를 조사해보면,

9) 鼻衄門, 頭門

<표 10>를 보면 제 28권에서 43종, 제29권에서 28권에 이어 새로운 의서 14종이 추가되었으며, 30권에서 4종이 추가되어 모두 61종 의서를 인용했는데, 성혜방이 43회로 주를 이루고, 천금방이 침구법에서 14회, 성제총록이 13회 인용되었다.

<표 10> 鼻衄門, 頭門(제28권-30권)

聖惠方 43, 千金方 14, 聖濟總錄 13, 經驗良方 7, 三因方 3, 百一選方 7, 得效方 3, 衛生寶鑑 6, 經驗秘方 4, 經驗方 3, 簡易方 1, 御醫撮要 1, 衛生十全方 2, 事林廣記 2, 金匱鉤玄 2, 梅師方 4, 孫兆方 1/1, 廣利方 3, 十全博救方 1, 孟詵 4, 本草 3, 鄉藥惠民方 2, 鄉藥救急方 2, 資生經 6, 拔粹方 3, 瑞竹堂方 3, 東垣試效方 1, 廣利方 2, 巢氏病源 1, 斗門方 3, 百一選方 6, 袖珍方 3, 簡要濟衆方 2, 直指方 5, 朱氏集驗方 3, 澹寮方 1, 勝金方 1, 食療 1, 圖經 1, 本草衍義 2, 日華子 3, 山居四要 2, 三和子方 2, 和劑方 1, 婦人大全良方 1, 醫方集成 2, 肘後方 3, 經驗後方 1, 神效名方 1, 醫林方 1, 千金翼 3, 外臺秘要 4, 孫真人 1, 食醫心鏡 1, 養老奉親書 1, 集驗方 1, 兵部手集 1, 居家必用 1, 藥性論 1, 崔元亮海上方 1, 陳藏器 1.

우리나라 의서로는 삼화자방, 향약해민방, 향약구급방이 각 2회, 어의촬요가 1회 인용되었다.

10) 眼病

제30권부터 중반부터 32권까지는 眼科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다. 이 분야의 전문 의서가 어떤 의서였는지 인용서를 조사하면,

<표 11> 眼病(제30권)

聖惠方 52, 聖濟總錄 20, 資生經 13, 千金方 12, 得效方 10, 本朝經驗 8, 外臺秘要 5, 烟霞聖效方 5, 拔粹方 1, 經驗良方 4, 百一選方 4, 直指方 3, 食醫心鏡 3, 鄉藥救急方 2, 衛生十全方 2, 藥性論 2, 兵部手集 1, 斗門方 1, 本草集方 1, 鄉藥惠民方 1, 本草衍義 1, 醫林方 1, 袖珍方 1, 五臟論 1/1, 玉龍歌 3, 神效名方 2, 修月魯般經 1, 簡要濟衆方 2, 崔元亮海上方 2, 范汪方 1/2, 御藥院方 3, 三和子方 5, 百要方 1, 經驗方 1, 肘後方 4, 集驗方 1, 和劑方 2, 衛生寶鑑 2, 經驗秘方 2, 瘡科精義 1, 問驗方 1/1, 食療 1, 銅人經 1/5, 巢氏病源 2, 東垣試效方 1, 宣明論 1, 簡易方 1, 抱朴子 1, 居家必用 2, 山居四要 1.

현대의학으로 분류하면 안과에 해당하는 이 병문에서는 총 50종이 인용되었다. 인용빈도수는 성혜방, 성제총록, 천금방, 득효방 순이며, 우리나라의서로 본조경험방이 8회, 삼화자방 3회, 향약구급방 2회, 향약해민방 1회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耳病門, 鼻門, 口舌門

제33권과 34권은 이비인후관계의 병을 다루었다. 이 분야의 인용서가 어떠한 자료가 주로 이용되었는지를 조사하면,

<표 12> 耳病門, 鼻門, 口舌門(제33권)

聖惠方 37, 聖濟總錄 1, 千金方 12, 百一選方 3, 三因方 1, 濟寮方 3, 醫林方 1, 簡易方 1, 經驗良方 7, 得效方 6, 瑞竹堂方 1, 外臺秘要 2, 本草衍義 2, 斗門方 2, 三和子方 1, 養老奉親書 1, 居家必用 1, 肘後方 1, 經驗秘方 3, 山居四要 1, 直指方 3, 資生經 6, 玉龍歌 3, 巢氏病源 2, 經驗方 1, 袖珍方 1, 神效名方 2, 拔粹方 1, 和劑方 1, 事林廣記 2, 孫眞人 1, 藥性論 1, 永類鈴 1, 新註銅人經 1, 衛生十全方 1, 葛稚川 1.

이 부분은 36종의 의서가 인용되었으며, 성혜방이 37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천금방과 옥룡가는 침구법에 인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의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삼화자방만 6회 인용되었다.

12) 齒牙門

제34권 말미와 제35권에 수록된 치아문에는 성혜방과 성제총록을 인용하여 치아에 대한 병론을 설명하고, 치료법을 기재하고 있다. 본 병문을 대상으로 인용서를 조사하면,

<표 13> 齒牙門(제34권, 35권)

聖惠方 30, 聖濟總錄 11, 千金方 5, 瑞竹堂方 2, 得效方 5, 百一選方 3, 和劑方 1, 經驗良方 2, 直指方 3, 御醫撮要 1, 御藥院方 2, 新效方 1, 千金翼方 2, 孫眞人 1, 肘後方 3, 食療 2, 外臺秘要 4, 姚氏方 1, 衛生十全方 1, 梅師方 1, 日華子 1, 廣濟方 1/6, 古今錄驗 2, 本朝經驗 3, 導引方 1, 資生經 1, 經驗秘方 4, 山居四要 1, 史記 1, 孟詵 1, 三和子方 2, 巢氏病源 1, 朱氏集驗方 1, 經驗後方 1, 文潞公 1/1, 鄉藥簡易方 1, 本草衍義 1, 經驗方 1, 神效名方 1, 烟霞聖效方 1, 居家必用 1.

본 치아문의 인용문헌은 맹선과 식료본초를 한 문헌으로 보면 총 40종이 인용되었다. 이 중 성혜방, 성제총록이 주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 의서로는 어의촬요방, 본조경험, 삼화자방, 향약간이방 4종이 인용되었다. 특히 이 부분은 의서가 아닌 史記도 인용되었다.

13) 咽喉門

제36권 인후문에서는 13 항목의 병증과 치료법 및 침구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 병문에 인용된 의서는 모두 31종으로 이 중 성제총록이 24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성혜방이 9회, 천금방 5회, 경험양방 5회 등 고루 인용되었다. 우리나라 의서로는 향약혜민방, 향약구급방, 본조경험 등이 1회씩 인용되었다.

<표 14> 咽喉門(제36권)

聖濟總錄 24, 聖惠方 9, 千金方 5, 經驗良方 5, 資生經 4, 直指方 3, 外臺秘要 3, 經驗秘方 2, 瑞竹堂方 2, 經驗方 2, 事林廣記 1, 居家必用 1, 靈苑方 1, 廣濟方 1, 百一選方 1, 得效方 1, 醫林方 1, 金匱鉤玄 1, 本草 1, 古今錄驗 1, 鄉藥惠民方 1, 鄉藥救急方 1, 本朝經驗 1, 集驗方 1, 千金翼方 1, 神效名方 1, 三因方 1, 簡易方 1, 烟霞聖效方 1, 范汪方 1, 肘后方 1, 梅師方 1.

14) 諸痢門, 痔漏門

제37권, 제38권은 제리문으로 22항목, 제39권은 치루문으로 4항목의 병증과 치료법 및 침구법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표 15> 諸痢門, 痔漏門(제37권-39권)

集成方 3/17, 聖惠方 30, 聖濟總錄 30, 拔粹方 5, 養老奉親書 4, 食醫心鏡 6, 百一選方 8, 御醫撮要 3, 孫真人備急 1, 本草 5, 圖經 4, 鄉藥惠民方 2, 本朝經驗 5, 袖珍方 2, 陳藏器 2, 肘后方 7, 三因方 5, 經驗秘方 8, 得效方 7, 經驗方 4, 千金翼 3, 古今錄驗 2, 藥性論 2, 三和子方 7, 鄉藥古方 2, 食醫心鑑 2, 食療 1, 孟詵 1, 經驗良方 5, 宣明論 2, 崔氏方 1, 集驗方 2, 居家必用 2, 外臺秘要 5, 千金方 9, 直指方 6, 張文仲 1/3, 澹寮方 2, 金匱鉤玄 1, 衛生十全方 5, 孫真人 3, 衛生寶鑑 1, 子母秘錄 2, 本草衍義 1, 資生經 6, 神效名方 3, 事林廣記 2, 朱氏集驗方 1, 和劑方 2, 王氏簡易方 1, 楊氏產乳 1, 乘閑方 1/1, 永類鈴(方) 2, 玉龍歌 1, 斗門方 1, 御藥院方 2, 簡易方 1, 東垣試效方 1, 烟霞聖效方 1, 脾胃論 1, 廣濟方 1, 靈苑方 1, 廣利方 1, 嚴氏濟生方 1, 梅師方 2, 朱氏經驗方 1, 勝金方 1, 必效方 1, 瘡科精義 2, 修月魯般經 1, 姚氏 1, 本事方 1, 日華子 1, 山居四要 1, 東人經驗 1, 徐云効驗方 1.

제37권부터 39권까지는 총 76종의 의서가 인용되었다. 주로 성혜방과 성제총록이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10회 이하이다. 우리나라의 서로는 집성방, 삼화자방, 향약고방, 향약혜민방, 본조경험, 동인경험 등이 보인다.

15) 癰疽瘡瘍門, 折傷跌撲門, 諸損傷門, 蟲獸傷門, 中諸毒門

癰疽瘡瘍門은 제40권부터 47권까지 73항목과 침구법, 折傷跌撲門은 제 47권 말미부터 48권초반까지 3항목, 諸損傷門은 48권에 이어서 49권까지 14항목, 蟲獸傷門은 49권 犬咬 와 침구법, 50권까지 11개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으며, 51권

초반부에 諸蟲咬人이 기록되어 있다. 제40권부터 제53권까지는 104종의 의서가 인용되었다. 이들 의서중 성혜방이 200회로 가장 많은 인용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천금방 76회, 성제총록 57회, 주후방 55회, 득효방 32회 순으로 인용되었다.

우리나라 의서는 삼화자방 25회, 본조경험이 23회, 향약혜민방, 향약이간방이 8회, 향약구급방이 각 7회 인용되었다. 제41 권에서는 유연자로 인용문을 밝히고, 제46권에서는 귀유방으로 밝히고 있다. 귀유방은 유연자의 저술로 볼 때 동일 의서로 보인다.

<표 16> 癰疽瘡瘍門, 折傷跌撲門, 諸損傷門, 蟲獸傷門, 中諸毒門(제40권-제53권)

聖惠方 200, 千金方 76, 聖濟總錄 57, 肘後方 55, 得效方 32, 直指方 30, 百一選方 29, 外臺秘要 27, 三和子方 25, 本朝經驗 23, 經驗良方 22, 本草 19, 梅師方 18, 經驗秘方 17, 孫真人 15, 圖經 13, 陳藏器 13, 袖珍方 11, 資生經 10, 神效名方 10, 三因方 9, 朱氏集驗方 9, 千金翼(方) 8, 經驗方 8, 斗門方 8, 衛生寶鑑 8, 瘡科精義 7, 集驗方 7, 簡易方 2, 產寶方 1, 澹寮方 6, 外科精要 4, 神仙截法 2, 子母秘錄 1, 經驗後方 5, 日華子 3, 廣利方 5, 集成方 4, 鄉藥簡易方 1, 神巧萬全 2, 永類鈴方 1, 劉涓子 2, 海上方 2, 兵部手集 3, 聖效方 6, 勝金方 8, 初虞世 3, 古今錄驗 2, 楊氏產乳 4, 醫方集成 1, 經驗海上方 1, 新效方 4, 玉山韓光方 1, 鄉藥易簡方 3, 醫林方 2, 修月魯般經 4, 玉龍歌 1, 拔粹方 6, 御藥院方 3, 金匱鉤玄 方 1, 鄉藥惠民方 7, 鄉藥救急方 7, 事林廣記 6, 食療 5, 簡要濟衆(方) 2, 嚴氏濟生方 1, 孫真人食忌 7, 瑞竹堂方 3, 食醫心鏡 1, 藥性論 2, 別說 1, 巢氏病源 6, 姚大夫 1, 必效方 1, 廣濟方 2, 衛生十全方 3, 銅人經 2, 姚氏方 4, 東垣試效方 2, 蘇學士 1, 鬼遺方 2, 崔氏方 1, 傷寒類要 1, 杜壬方 1, 本草衍義 1, 居家必用 2, 塞上方 1, 宣明論 1, 洗冤錄 2, 金匱方 6, 外科精義 4, 靈苑方 2, 烟霞聖效方 1, 千金髓 1, 續十全方 2, 南北史 1, 錢相公篋中方 1, 沈存仲 1, 沈存仲筆談 1, 錢相公 1, 小品方 1, 事文類聚 1, 張文仲 1, 抱朴子 1, 孟詵 1.

外科精要和 外科精義는 총 인용빈도가 4회, 神仙截法, 神巧萬全是 2회, 鬼遺方 2회, 玉山韓光方, 姚大夫, 蘇學士, 傷寒類要, 杜壬方, 塞上方, 錢相公, 事文類聚 등은 1회로 본 명문중에서 모두 인용되었다. 또한 의서가 아닌 蘇學士, 南北史, 事文類聚 등도 보인다.

16) 婦人科

제54권 부인과는 66권까지 조경문, 봉루문, 부인제병문, 여음문, 구사문, 태교

문, 임신질병문, 좌월문, 산난문, 산후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병문들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모두 100종의 문헌이 인용되었다. 산부인과 부분이라서 부인에 관련된 의서가 총망라되었다. 부인대전양방이 260회, 성혜방 121회로 두 의서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천금방이 54회, 성제총록 48회, 경험양방 22회 순으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의서는 거의 10회 이하이다. 산부인과에서 우리나라 의서가 인용되었는데, 삼화자방 10회, 향약이간방 5회(향약간이방 2회), 향약구급방 3회, 본조경험 2회, 어의촬요 1회 순으로 인용되었다. 특히 본 병문에서는 타 병문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의서가 상당수 보인다.

<표 17> 婦人科(제54권-66권)

婦人大全良方 260, 產寶方 35, 聖惠方 121, 得效方 21, 千金方 54, 御藥院方 4, 和劑方 5, 產寶諸方 3, 聖效方 4, 經驗良方 22, 宣明論 4, 產育保慶集 1, 袖珍方 6, 簡易方 3, 瑞竹堂方 3, 養生必用方 1, 崔氏海上集 1, 張子方 2, 濟生方 2, 簡要濟衆方 1, 斗門方 2, 神效名方 8, 三因方 5, 直指方 4, 衛生寶鑑 5, 聖濟總錄 48, 圖經 2, 食療 3, 陳藏器 6, 資生經 9, 玉龍歌 5, 百一選方 5, 肘後方 10, 澹寮集驗秘方 1, 本草 9, 初虞世 1, 孟詵 1, 山居四要 1, 千金翼方 6, 澹寮方 4, 新效方 2, 三和子方 10, 張文仲 1, 外臺秘要 3, 唐本註 1, 古今錄驗 1, 楊氏產乳 8, 集成方 3, 產乳保慶集 1, 養老奉親書 1, 永類鈴方 5, 傷寒類要 2, 子母秘錄 15, 姚和衆 1, 集驗方 4, 孫眞人 1, 胎產救急方 11, 鄉藥救急方 3, 藥性論 1, 新註銅人經 1, 集驗1, 經驗方 5, 普救方 1, 日華子2, 金匱方 3, 朱氏集驗方 10, 巢氏病源 5, 嚴氏濟生方 2, 拔粹方 6, 產經 5, 食醫心鑑 3, 簡易方 2, 救急方 2, 梅師方 7, 本朝經驗 2, 王嶽產書 7, 南陽活人書 1, 王氏集驗方 1, 勝金方 1, 衛生方 2, 易產滑胎方 1, 千金髓 1, 續十全方 2, 醫方集成 1, 鄉藥易簡方 5, 十全方 1, 廣濟方 1, 兵部手集 2, 延年方 1, 近效方 1, 金匱鉤玄 2, 千金翼方 4, 食醫心鏡 3, 產科保慶集 1, 食醫心鑑 2, 經驗後方 2, 御醫撮要 1, 本草衍義 1, 衛生十全方 2, 鄉藥簡易方 2.

產寶諸方, 產育保慶集, 養生必用方, 澹寮集驗秘方, 胎產救急方, 集驗, 普救方, 產經, 王嶽產書, 易產滑胎方, 十全方, 延年方, 產科保慶集 등이다. 產育保慶集은 產科保慶集은 같은 책으로 보이고, 十全方은 위생십전방의 약서명인 것으로 보인다.

17) 小兒科

제67권부터 75권까지 188개의 항목과 부록으로 神仙方書, 神仙諸方, 神仙去三尺九蟲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소아과에서는 총 78종이 인용되었는데, 성혜방이 345회로 인용빈도가 가장 높고, 천금방 59회, 성제총록, 자모비록, 경험양방, 명당경 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서인 향약간이방이 13회, 삼화자방 9회, 집성방 7회, 향약구급방 5회, 본조경험방 1회도 보인다. 省翁活幼口義와 保童秘要가 8회, 錢氏方 6회, 錢氏小兒方 2회, 王氏濟衆方와 秦承祖기 1회로 이들은 본 소아과에서 모두 인용되었다.

<표 18> 小兒科(제67권-75권)

聖惠方 345, 簡要濟衆方 3, 澹寮方 7, 千金方 59, 經驗良方 20, 金匱鉤玄 4, 食療 3, 明堂經 15, 小兒宮氣方 1, 子母秘錄 23, 得效方 28, 拔粹方 12, 新效方 1, 袖珍方 2, 鄉藥簡易方 13, 省翁活幼口義 8/8, 楊氏方 1, 外臺秘要 3, 錢氏方 6, 姚和衆 7, 本草 7, 聖濟總錄 36, 經驗方 2, 錢氏小兒方 2, 三和子方 9, 素問藥證 1, 巢氏病源 3, 永類鈴方 4, 譚氏 2, 資生經 8, 集成方 7, 鄉藥救急方 5, 孫真人 4, 兵部手集 4, 食醫心鑑 9, 金匱方 1, 直指方 6, 傷寒類要 1, 百一選方 6, 永類鈴方 3, 肘後方 6, 三因方 1, 南陽活人書 1, 王氏博濟方 1, 王氏濟衆方 1, 譚氏小兒方 1, 劉氏 1, 經驗後方 2, 衍義 1, 素問藥證 3, 醫林方 4, 古今錄驗 1, 聖效方 1, 衛生寶鑑 8, 宣明論 2, 秦承祖 1, 保童秘要 8, 集驗方 1, 千金翼方 1, 本朝經驗方 1, 和劑方 2, 藥性論 2, 斗門方 1, 本事方 1, 圖經 1, 楊氏產乳 2, 崔氏海上集 1, 廣利方 1, 十全博救方 1, 勝金方 1, 朱氏集驗方 3, 全嬰方 2, 湯氏 2, 神效名方 1, 事林廣記 1, 修真秘旨 1, 日華子 1, 玉龍歌.

18) 鄉藥本草

향약본초에서는 총 110종의 문헌이 인용되었다. 이 중 圖經, 日華子本草, 藥性論, 陶隱居, 陳藏器本草, 唐本註, 孟詵, 蜀本註 등이 주를 이루었다.

<표 19> 鄉藥本草(제76권-85권)

眞珠囊 37, 仲景 1, 湯液本草 2, 本草序例 1, 藥性論 247, 日華子 320, 抱朴子內篇 7, 陶隱居 206, 吳氏 11, 圖經 327, 雷公 34, 傷寒類要 1, 太清伏錄靈砂法 3, 蜀本 83, 陳藏器 131, 陳藏器本草 50, 唐本註 136, 蕭炳 20, 蜀本註 83, 別說 3, 詳定本草 1, 禹貢註 1, 新註 2, 丹房鏡源 4, 別本註 15, 張司空 1, 藥訣 1, 食譜 2, 百一方 1, 野人閑話朱眞人靈驗篇 1, 丹房鏡源 1, 藥對 8, 簡要濟衆方 1, 十全補救 1, 博物志 3, 肘後方 1, 婦人大全良方 1, 居家必用 1, 唐天寶單方圖 1, 海藥 7, 楊損之 1, 衍義 23, 郭璞 4, 孟詵 103, 蘇恭 2, 廣志 2, 別錄 14, 食療 48, 范子計然 1, 蘇恭 1, 孫眞人食忌 9, 高供奉採萍時日歌 1, 典術 1, 崔豹古今註 2, 魯定公 1, 茶經 1, 韋宙獨行方 4, 子母秘錄 1, 纂文 1, 孫眞人枕中記 1, 亂設 1, 孫眞人 13, 楊文公談苑 1, 千金翼方 1, 食醫心鏡 7, 臣禹錫等 22, 陳士良 22, 禮記 5, 癰疽通用藥 1, 壺居士 1, 耳珠先生固牙齒法 1, 崔元亮海上方 1, 沈存仲 3, 姚氏方 1, 臨海志 1, 安胎通用藥 1, 中惡通用藥 1, 鷄白蠟肥脂 1, 廣利方 1, 賈相公牛經 1, 李氏本草 1, 滅癰通用藥 1, 臨海異物志 1, 楊文公談苑 1, 列子天瑞篇 1, 爾雅 2, 荊楚歲時記 1, 古今異傳 1, 淮南子 1, 掌禹錫, 穆天子傳, 神荀卿 1, 爾雅 1, 陸機疏 1, 嵩陽子 1, 吳氏本草 1, 北夢鎖言 1, 莊子 2, 梅師方 1, 梁簡文帝勸醫文 1, 野人閑話 1, 丹房鏡源 2, 傷寒類要 1, 范勝之 1, 正俗 1, 許氏說文解字 1, 博物志 1, 食物本草 1, 千金方 1, 金匱方 2, 聖惠方 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충인용문헌은 <표 20>과 같다.

<표 20> 引用書 및 引用頻度³²⁾

聖惠方(1331), 聖濟總錄(419), 千金方(364), 圖經(357), 日華子(335), 婦人大全良方(262), 藥性論(260), 陶隱居(207), 陳藏器(170), 肘後方(166), 得效方(166), 經驗良方(144), 資生經(139), 唐本註(139), 本草(127), 孟詵(120), 外臺秘要(108), 百一選方(104), 直指方(96), 三和子方(96), 蜀本(84), 食療(80), 經驗秘方(75), 本朝經驗(65), 三因方(58), 拔粹方(54), 孫眞人(53), 梅師方(50), 衍義(48), 食醫心鏡(46), 朱氏集驗方(46), 子母秘錄(45), 袖珍方(44), 經驗方(43), 衛生寶鑑(41), 神效名方(41), 澹寮方(37), 眞珠囊(37), 產寶方(36), 玉龍歌(35), 雷公(34), 和劑方(33), 千金翼方(33), 斗門方(31), 鄉藥救急方(31), 養老奉親書(28), 巢氏病源(28), 烟霞聖效方(28), 居家必用(27), 食醫心鑑(26), 衛生十全方(26), 集驗方(25), 經驗後方(24), 鄉藥易簡方(24), 簡易方(24), 御藥院方(22), 瑞竹堂方(22), 臣禹錫等(22), 陳士良(22), 簡要濟衆方(21), 永類鈴方(21), 兵部手集(20), 肅炳(20), 鄉藥惠民方(21), 宣明論(20), 醫方集成(20), 廣利方(18), 金匱方(18), 事林廣記(18), 鄉藥簡易方(17), 集成方(17), 楊氏產乳(17), 金匱鉤玄(16), 明堂經(16), 孫眞人食器(16), 別本註(16), 別錄(15), 勝金方(15), 新效方(14), 醫林方(13), 傷寒指掌圖(12), 御醫撮要(12), 聖效方(11), 瘡科精義(11), 傷寒類要(11), 吳氏(11), 胎產救急方(11), 抱朴子(10), 山居四要(10), 蜀本註(10), 衛生方(9), 嚴氏濟生方(9), 姚和衆(9), 東垣試效方(9), 古今錄驗(9), 永類鈴(8), 崔元亮海上方(8), 藥對(8), 保童秘要(8), 姚氏方(7), 修月魯般經(7), 王巖產書(7), 海藥(7), 靈苑方(6), 錢氏方(6), 別說(6), 廣濟方(6), 初虞世(6), 易簡方(6), 東人經驗(6), 本事方(5), 禮記(5), 產經(5), 張仲景(5), 濟生方(5), 銅人經(5), 醫方大成(4), 韋宙獨行方(4), 外科精義(4), 鄉藥古方(4), 外科精要(4), 崔氏(4), 續十全方(4), 素問藥證(4), 陳藏器(4), 丹房鏡源(4), 郭璞(4), 譚氏(3), 姚氏(3),

32) 서명 옆의 숫자는 충인용회수임.

百要方(3), 張文仲(3), 十全博救方(3), 必效方(3), 南陽活人書(3), 王氏博濟方(3), 產寶諸方(3), 救急方(3), 陳藏器本草(3), 博物志(3), 洗冤錄(3), 海上方(3), 川玉集傷寒論(3), 崔氏海上集(3), 張子和(3), 沈存仲(3), 沈存仲筆談(2), 食譜(2), 小品(2), 衛生續方(2), 脾胃論(2), 范汪方(2), 良濟備急(2), 近效方(2), 海上名方(2), 經驗海上方(2), 孫真人枕中記(2), 鬼遺方(2), 葛氏方(2), 楊氏家藏方(2), 修真秘旨(2), 蘇恭(2), 廣志(2), 孫真人備急(2), 莊子(2), 爾雅(2), 錢相公篋中方(2), 錢氏小兒方(2), 神仙截法(2), 崔豹古今註(2), 千金髓(2), 神巧萬全(2), 新註(2), 劉涓子(2), 全嬰方(2), 湯氏(2), 太清伏靈砂法(2), 湯液本草(2), 新註銅人經(2), 服氣精義(2), 本草序例(1), 抱朴子內篇(1), 傷寒類要(1), 詳定本草(1), 禹貢註(1), 張司空(1), 百一方(1), 野人閑話朱真人靈驗篇(1), 十全補救(1), 唐天寶單方圖(1), 楊損之(1), 藥訣(1), 范子計然(1), 高供奉採萍時日歌(1), 郭璞註(1), 典術(1), 魯定公(1), 茶經(1), 酉陽雜俎(1), 廣州記(1), 陳藏器序(1), 仲景(1), 纂文(1), 亂設(1), 白樂天(1), 嗣伯(1), 楊文公談苑(1), 癰疽通用藥(1), 壺居士(1), 耳珠先生固牙齒法(1), 臨海志(1), 安胎通用藥(1), 中惡通用藥(1), 鷄白蠶肥脂(1), 賈相公牛經(1), 李氏本草(1), 滅癰通用藥(1), 臨海異物志(1), 楊文公談苑(1), 列子天瑞篇(1), 荊楚歲時記(1), 古今異傳(1), 淮南子(1), 掌禹錫(1), 穆天子傳(1), 神荀卿(1), 陸機疏(1), 嵩陽子(1), 梁簡文帝勸醫文(1), 野人閑話(1), 范勝之(1), 正俗(1), 許氏說文解字(1), 食物本草(1), 唐韋宙獨行方(1), 本草衍義備急方(1), 茹亭客話(1), 纂圖方(1), 陳室中方(1), 張氏六門方(1), 內外傷辨(1), 直言治病方(1), 孫尚藥方(1), 金匱玉函(1), 張先生(1), 經驗後集(1), 古今錄驗方(1), 東垣用藥珍珠囊(1), 孫尚藥救急(1), 劉禹錫傳信方(1), 崔元亮方(1), 濟衆立效方(1), 外臺延年方(1), 圖經本草(1), 夏禹神仙經(1), 活人總括(1), 必用之書(1), 孫用和(1), 傷寒類書(1), 通眞子傷寒(1), 簡奇方(1), 良濟方(1), 脚氣治法總要(1), 瑣碎錄(1), 修真神仙方(1), 張仲文傳(1), 道書八帝聖化經(1), 太清諸草木方(1), 王氏易簡方(1), 王氏簡易方(1), 孫兆方(1), 玉山韓光方(1), 姚大夫(1), 蘇學士(1), 杜壬方(1), 塞上方(1), 南北史(1), 太平廣記(1), 博信方(1), 錢相公(1), 事文類聚(1), 產育保慶集(1), 養生必用方(1), 澹寮集驗秘方(1), 集驗(1), 普救方(1), 王氏集驗方(1), 易產滑胎方(1), 十全方(1), 備急方(1), 本草集方(1), 五臟論(1), 問驗方(1), 古今錄驗(1), 導引方(1), 史記(1), 文潞公(1), 乘閑方(1), 朱氏經驗方(1), 徐云効驗方(1), 延年方(1), 產科保慶集(1), 小兒宮氣方(1), 楊氏方(1), 王氏濟衆方(1), 譚氏小兒方(1), 劉氏(1), 秦承祖(1), 譚氏方(1).

총 인용문헌을 조사결과 308종에 가까웠다. 308종 중 10회 이상 인용된 의서는 90종이었으며, 10회 미만은 218종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인용된 의서는 <표 20>에서 본 바와 같이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千金方, 圖經, 日華子, 婦人大全良方, 藥性論, 陶隱居, 陳藏器, 肘後方, 得效方, 經驗良方, 資生經, 唐本註, 本草, 孟詵, 外臺秘要, 百一選方, 直指方, 三和子方, 蜀本, 食療, 經驗秘方, 本朝經驗, 三因方, 拔粹方, 孫真人, 梅師方 순이다. 이 중 圖經은 357회 인용빈도 중 향약본초에서 327회를 인용했으며, 日華子は 335회 중 320회를, 藥性論은 260회 중 247회, 陶隱居는 207회 중 206회, 陳藏器는 170회 중 131회, 唐本註는 139회 중 136회, 孟詵 120회, 蜀本은 84회 중 83회, 食療는 80회 중 48회를 모두 향약본초에서 인용하였

다. 따라서 76권부터 85권까지의 향약본초 부분을 제외한 병문 1권부터 75권 까지 편저자들이 편집하면서 인용문헌이 주가 된 것은 太平聖惠方 1331회로 가장 많고, 聖濟總錄이 419회, 千金方이 364회, 婦人大全良方 262회, 肘後方 得效方이 166회, 經驗良方 144회, 資生經 139회이며, 기타 本草, 外臺秘要, 百一選方, 直指方, 三和子方, 經驗秘方, 本朝經驗, 三因方, 拔粹方, 孫真人, 梅師方 등이 모두 50회 이상 각 병문에서 인용된 의서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인용문헌이 본 향약집 성방을 편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인용서 중에 簡要濟衆方(宋 周應 等撰)·經驗秘方(元 失名)·經驗良方(元 失名)·保童秘要(金 劉宗素)·產寶方(唐 晷殷)·修月魯般經(元 失名)·食醫心鑑(唐 晷殷)·神巧萬全(宋 劉元賓)·烟霞聖效方(宋 失名)·衛生十全方(宋 夏德懋)·川玉集傷寒論(宋 失名)·通眞子傷寒(宋 劉元賓) 등은 망실된 의서이다. 이 의서들은 江戸末頃に 일본의 多紀元堅이 우리나라 세종 27년(1445) 10월에 金禮蒙, 柳誠源, 閔普和 등이 편찬한 『醫方類聚』의 인용서에서 발췌하여 일부분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향약구급방외에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실체를 편모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 향약의서의 인용처는 <표 21>과 같다.

<표 21> 향약의서의 인용처³³⁾

書名	引用處	回數
濟衆立效方	제3권 風門 中風半身不隨	1
三和子方	제2권, 柔風, 風癱, 권제3 頭面風, 風頭旋, 歷節風, 大風疾, 권4 風癰疹, 一切風通用方, 권9 熱病門: 熱病發黃, 暑門, 권10 積熱門, 권11 脚氣門-脚氣緩弱, 脚氣腫滿, 권12 腰痛門: 腰痛強直不能俛仰, 권13	96

33) 본 표에서는 너무 방대하여 인용처만 밝히고 각 해당 내용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단, <濟衆立效方>의 경우는 1회만 인용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옮겨보면, 風門, 中風半身不隨條에, “<濟衆立效方> 治偏風手足不遂, 疼痛/松葉五斗許, 鹽二升/右 蒸熟, 盛袋中, 熨之, 冷則更蒸, 以差爲度”(편풍으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 술잎 5말가량에 소금 2되를 넣어 이를 증열한 뒤에 포대에 넣어 통증이 있는 곳에 찜질하고, 식으면 다시 찌서 차도가 있을 때 까지 여러 번 한다.)라 하여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霍亂門; 霍亂轉筋, ㉑16 勞瘵門; 消渴, ㉑17 水病門, ㉑19 大小便門; 小便不通, 尿血, ㉑20 大便不通, ㉑20 諸淋門; 石淋, ㉑21 熱淋, 血淋, 卒淋澀痛 附一切淋, ㉑22 積聚門; 癰疽, ㉑23 心痛門, ㉑23 心痛門; 心腹痛, ㉑26 嘔吐門; 嘔吐, ㉑26 嘔吐門; 乾嘔, ㉑26 噎膈門; 五噎, ㉑28 鼻衄門; 吐血, ㉑29 頭門; 頭痛, ㉑30 眼病門; 眼內障, ㉑31 眼青盲, ㉑31 眼卒生翳膜, ㉑32 眼昏暗, 眼被物撞打着, ㉑33 耳門; 耳聾, 耳虛鳴, 耳疼痛, ㉑34 口舌門; 口舌生瘡, 重舌, 唇口面皸, ㉑35 齒牙門; 牙齒風疳, 斷間血出, ㉑37 諸痢門; 赤白痢, ㉑37 諸痢門; 血痢, ㉑37 諸痢門; 冷痢, ㉑37 諸痢門; 熱痢, ㉑38 諸痢門; 氣痢, ㉑39 痔漏門, ㉑39 痔漏門; 脫肛, ㉑40 癰疽瘡瘍門; 疽論, ㉑40 癰疽瘡瘍門; 腸癰, ㉑41 緩疽, 附骨疽, 發背, ㉑42 遊腫, ㉑42 丁瘡, ㉑44 蝸瘡, ㉑44 疥瘡, ㉑45 漆瘡, 妬精瘡陰蝕瘡, 陰瘡, 陰下濕痒, 夏月癩瘡, 諸瘡, ㉑46 諸瘡, 頭瘡, 面黦黧, ㉑47 面疔, ㉑48 金瘡, ㉑48 諸損傷門; 湯火瘡, ㉑49 灸瘡久不差, 口臭, 狐臭, ㉑50 野獸傷, ㉑54 婦人科; 崩漏門; 崩中漏下生死脈, ㉑56 女陰門; 婦人陰腫, 婦人陰瘡, ㉑58 妊娠疾病門; 妊娠胎動下血, ㉑58 妊娠卒然下血, ㉑59 妊娠腰腹及背痛, ㉑62 產難門; 產難子死腹中, ㉑63 產後門; 胞衣不下, ㉑64 產後惡露不絕, 產後兒枕心腹刺痛, ㉑68 小兒夜啼, 小兒飲乳後吐乳, ㉑71 小兒癰疽, 小兒誤吞物, 小兒熱痢, 小兒一切痢久不差, ㉑73 小兒頭瘡, 小兒頭面身體生瘡, 小兒熱瘡	
鄉藥古方	㉑3 歷節風, ㉑24 諸效門; 欬嗽上氣, ㉑37 諸痢門; 赤白痢, ㉑38 諸痢門; 腸風下血	4
御醫撮要	㉑15 驚悸門, ㉑17 水病門; 十水腫, ㉑23 心痛門; 心腹痛, ㉑24 諸效門; 欬嗽, 久欬嗽, ㉑27 脾胃門, ㉑28 鼻衄門; 鼻衄, ㉑34 齒牙門, ㉑37 諸痢門; 赤痢, ㉑37 諸痢門; 久血痢, ㉑37 諸痢門; 冷痢, ㉑66 產後乳汁或行或不行	12
集成方	㉑37 諸痢門, ㉑38 諸痢門; 腸風下血, ㉑39 痔漏門, ㉑40 癰疽瘡瘍門; 肺癰, ㉑42 丁瘡, ㉑46 諸瘡, ㉑48 諸損傷門; 湯火瘡, ㉑55 婦人諸病門; 婦人虛損補益, ㉑60 妊娠胎水腫滿, ㉑64 產後尊勞, ㉑68 小兒欬嗽, ㉑69 小兒熱病, ㉑71 小兒骨蒸, 小兒一切痢久不差, ㉑73 小兒蝕瘡, ㉑74 小兒一切丹, ㉑75 小兒脫肛	17
鄉藥救急方	㉑4 風瘙痒, ㉑10 瘡病門; 瘡發作無時, ㉑11 脚氣門-脚氣心腹脹滿, ㉑16 勞瘵門; 消渴, ㉑17 水病門, ㉑19 大小便門; 小便不通, ㉑21 諸淋門; 卒淋澀痛 附一切淋, 諸疔門; 陰癰, ㉑23 心痛門; 心腹痛, ㉑24 諸效門; 欬嗽, ㉑26 噎膈門; 五噎, ㉑28 鼻衄門; 鼻衄, ㉑29 頭門, ㉑30 眼病門; 赤眼, ㉑30 眼病門; 眼風淚, ㉑36 咽喉門; 喉痺, ㉑43 一切癰, ㉑44 蝸瘡, ㉑44 一切惡瘡, ㉑45 陰瘡, ㉑47 折傷打撲門, ㉑52 食諸菜蕈菌中毒(식제채심균중독, 食六畜肉中毒), ㉑56 女陰門; 婦人陰腫, ㉑62 產難門; 催生, ㉑62 產難門; 產難子死腹中, ㉑68 小兒欬嗽, ㉑69 小兒黃病, ㉑72 小兒齒痛風蝕, ㉑74 小兒浸淫瘡, ㉑75 小兒脫肛	31
鄉藥惠民方	㉑4 一切風通用方, ㉑6 傷寒頭痛, ㉑10 瘡病門; 瘡發作無時, ㉑12 腰痛門; 卒腰痛, ㉑16 勞瘵門; 消渴, ㉑23 心痛門; 心腹痛, ㉑24 諸效門; 欬嗽, 久欬嗽, ㉑28 鼻衄門; 鼻衄, ㉑29 頭門; 偏頭痛, ㉑30 眼病門; 赤眼, ㉑36 咽喉門; 喉痺, ㉑37 諸痢門; 赤痢, ㉑38 諸痢門; 腸風下血, ㉑43 癰瘰, ㉑43 一切癰, ㉑44 蝸瘡, ㉑44 一切惡瘡, ㉑45 陰瘡, ㉑46 諸瘡, ㉑47 手足皸裂	24

東人經驗方	권10 瘡病門;瘡發作無時, 권12腰痛門; 五種腰痛, 권2 霍亂門;霍亂吐利, 권5 驚悸門;骨蒸勞, 권26 嘔吐門; 嘔吐, 권 39 痔漏門; 脫肛	6
鄉藥簡易方	권35齒牙門; 齒斷腫痛, 권 41 緩疽, 권66 產後吹爛,乳癰, 권67小兒科 初生兒鵝口, 小兒口瘡, 小兒臍瘡, 권68 小兒熱渴不止, 권68 小兒欬嗽, 권 69小兒痰實, 小兒冷熱不調, 권71 小兒乳癖, 권71 小兒尸疰, 권72小兒聾耳,小兒癰氣, 권73 小兒頭瘡, 권75 小兒遺尿	17
鄉藥易簡方	권4 癰瘍風, 一切風通用方, 권10 積熱門, 권10 학병문:瘡發作無時, 권11 脚氣門-脚氣衝心煩悶, 諸般脚氣, 권12 腰痛門-五種腰痛, 腰脚疼痛, 권13 霍亂門;霍亂心腹脹, 권25 諸氣門;止氣, 권 42 丁瘡, 권46 癰瘤, 권 47酒皸 (주사),滅癰痕, 권47 折傷打撲門, 권 48 諸損傷門 湯火瘡, 권 52 食蟹中毒, 53 권 諸救急門; 卒忤, 溺死, 권62 產難門; 催生, 권63 產後門; 胞衣不下, 產後血暈, 產後腰痛, 권64 產後惡露不下	24
本朝經驗	권3 大風疾, 권4 風癰疹, 一切風通用方, 권5 傷寒陽毒 卷9 暑門 濕門 권10 학병문:瘡發作無時, 권11 脚氣門-脚氣上氣, 脚氣腫滿, 諸般脚氣, 권13 霍亂門;中惡霍亂, 권14 諸虛門, 권15 驚悸門; 自汗, 권16 勞瘵門; 消渴, 권17 水病門, 권17 水病門;十水腫, 권 21 血淋, 諸疝門; 陰腫, 권 23 心痛門; 心腹痛, 권 24 諸效門; 欬嗽, 久欬嗽, 권26 噎膈門; 五噎, 권30 眼病門; 赤眼, 권30眼病門; 眼赤爛, 권30 眼病門; 眼風淚, 권31 眼雀目, 眼卒生翳膜, 권32 眼見黑花, 권32 眼昏暗, 眵目, 권34 齒牙門, 권35齒牙門 ;牙齒蛀孔有蟲 揩齒, 권38 喉門; 喉痺, 권37 諸痢門;赤痢, 권37 諸痢門;赤白痢, 권 38 諸痢門; 一切痢, 권 39 痔漏門, 권39 痔漏門; 痔瘡, 권 40 癰疽瘡瘍門; 疽論, 권 41 緩疽, 發背, 권 42 一切丹毒, 권43 癰癰, 권43 一切癰, 권43 濕癰, 권45 漆瘡, 妬精瘡陰蝕瘡, 諸瘻, 권46 癰瘤, 권47 折傷打撲門, 권48 諸損傷門 凍瘡, 권48 諸損傷門 湯火瘡, 권49 狐臭, 骨鯁, 馬汗入瘡, 권 49 蟲獸傷門 ;犬咬, 권 50野獸傷 蛇咬 蜂螫人(봉석인), 권52 狗肉毒 53 권 諸救急門 卒死 권58 妊娠胎上逼心 권65 產後乳汁或行或不行, 권70 小兒一切疳	65

<표 21>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고유의 향약의서가 본 집성방에 상당한 인용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인용빈도별로 보면, 三和子方 96, 本朝經驗方이 65회, 鄉藥救急方 31회, 鄉藥易簡方 24회(鄉藥簡易方 17회), 鄉藥惠民方 20, 集成方 17회, 御醫撮要 12회, 東人經驗 6회, 鄉藥古方 4회, 濟衆立效方 1회 등이다. 「향약간이방」과 「향약이간방」을 동일서명으로 보고 「집성방」을 「향약제생집성방」으로 본다면 10중에 달한다. 또한 확실치 않은 의서로 「經驗方」43회, 簡易方 24회, 易簡方 6회, 救急方 3회 등이 있는데, 이는 저자가 「간이방」과 「이간방」, 「구급방」을 향약이란 문구를 제외하고 간략서명으로 기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경험방」 역시 「본조경험방」인지 「동인경험방」인지 중국의 「오씨경험방인지」 확실치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들의 인용출처를 생략했다. 그러나 「집성방」은

본서를 집필하면서 「향약제생집성방」을 보완·수정한 것이 확실하므로 「향약제생집성방」으로 인정하고 출처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본 의서에 인용된 우리 고유의 의서가 이미 일실되었지만 일면이나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복원하는데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結 言

향약집성방은 총 85권으로 57의 병문과 부인과 소아과로 구성되었다. 病證이 959가지이고, 그에 대한 처방이 10,706가지이며, 침구법이 1,476조이다. 향약본초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 石, 草, 木, 人, 獸, 禽, 蟲魚, 果, 米穀, 菜部 가 모두 208종이며, 각론에서는 679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세종 13년(1431)부터 편집에 착수하여 세종 15년(1433) 6월에 완성하여 동 8월 27일에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분간하였다. 그 후 성종 9년(1478)에 중간하였으며, 또한 성종 19년(1488) 9월 20일에는 언문으로 번역하여 활자로 인쇄토록 하여 많은 사람들의 애용서가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부터는 중국의 의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반면에 향약에 대한 관심은 150여 년 동안 쇠퇴해졌다. 그 후 여러 차례 국난을 겪는 등으로 중국의 약재수입이 어렵게 되자 다시 鄉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조 11년(1633)에 훈련도감제조 李曙 등이 補遺편을 붙여 重刊 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서의 인용문헌은 총 300여종으로 漢·唐·宋·金·元代의 의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서는 10여종이 인용되었다. 인용문헌 빈도를 조사한 결과 聖惠方, 聖濟總錄, 千金方, 圖經, 日華子, 婦人大全良方, 藥性論, 陶隱居, 陳藏器, 肘後方, 得效方, 經驗良方, 資生經, 唐本註, 本草, 孟詵, 外臺秘要, 百一選方, 直指方, 三和子방, 蜀本, 食療, 經驗秘方, 本朝經驗, 三因方, 拔粹方, 孫眞人, 梅師方 순이다. 이 중 圖經은 357회 인용빈도 중 향약본초에서 327회를 인용했으며, 日華子は 335회 중 320회를, 藥性論은 260회중 247회, 陶隱居는

207회 중 206회, 陳藏器는 170회 중 131회, 唐本註는 139회 중 136회, 孟詵 120회 모두 향약본초에서 인용했으며, 蜀本은 84회 중 83회, 食療는 80회 중 48회를 향약본초에서 인용하였다. 따라서 76권부터 85권까지의 향약본초 부분을 제외한 병문 1권부터 75권 까지 편저자들이 편집하면서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보인 것은 聖惠方이 1331회로 가장 많고, 聖濟總錄이 419회, 千金方이 364회, 婦人大全良方 262회, 肘後方, 得效方이 166회, 經驗良方 144회, 資生經 139회이며, 기타 本草, 外臺秘要, 百一選方, 直指方, 三和子方, 經驗秘方, 本朝經驗, 三因方, 拔粹方, 孫真人, 梅師方 등이 모두 50회 이상 병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대다수의 의서들이 거의 1회씩 인용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면 실제 중요시된 의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의서는 고려 때의 의서인 濟衆立效方, 鄉藥惠民方, 御醫撮要, 鄉藥古方, 三和子方, 鄉藥救急方 과 조선 초의 의서 鄉藥簡易方, 鄉藥濟生集成方, 本朝經驗方, 東人經驗方 등으로 현재 향약구급방 외에는 망실된 의서이다. 따라서 망실된 의서는 본 의서에 인용된 출처에 의하여 그 편모를 알 수 가 있으며, 복원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향약집성방」의 편찬은 거의 중국의의서에 의존하였지만 우리 고유의 향약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데 독창적인 시도를 보였다는 것과 당시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의서를 총 망라하여 편찬한 것은 가치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본 의서를 편찬하면서 인용한 문헌을 모두 명시하였다는 것은 당시 학자들의 연구자세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의방류취」나 「동의보감」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의서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용면에서 볼 때 백성과 의원들 사이에 고르게 이용되지 못하였다는데서 많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출판지부터 시골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의원들이 전문의 서로 취급하였다면 중앙에서 출판하였을 것이다. 둘째, 의사선발시험인 잡과에서 취재과목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취재과목으로 일시 선정은 하였지만 한 번도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 셋째, 의원의 열람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내용이 단순하고, 구하기가 쉬운 약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백성들

이 쉽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언문으로 번역 출간된 것 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24년(1442)에는 함길도의 선비들에게 교육용도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향약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고관들은 중국의 약재를 선호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광해군 5년(1613) 內醫院에서 간행된 許浚의 『東醫寶鑑』에서도 인용서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잡병편’에서 2회정도에 불과하다. 넷째는 계속 출판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용빈도가 높으면 발행회수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판 이후 성종 9년(1478)에 중간되었으며, 동 19년(1488)에 언문으로 번역하여 활자로 간행되었다는 것과 인조 11년(1633)에 이르러 중간하였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이러한 일부의 원인들로 인해 본 의서가 실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창적인 의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의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鄉藥集成方」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醫藥學篇>

과학·백과사전출판사, 「鄉藥集成方」: 완역본. 서울: 일월서각 1993.

「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朝鮮王朝實錄」(단종실록).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朝鮮王朝實錄」(세조실록).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朝鮮王朝實錄」(예종실록).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朝鮮王朝實錄」(성종실록).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陽村集」

「東國李相國集」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金信根, 「韓國醫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三木榮, (解説)鄉藥集成方, 秘藏古版朝鮮醫書叢刊; 제1집부록, 京城: 杏林書院,
昭和 17[1942].

K C I

КСІ